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4년 7월 28일(주일) 제1502호

그리운 목사님! 보고 싶은 목사님!

하용조 목사 소천 13주기 ... 7월 29일~8월 2일 추모기간
새벽기도회 설교 영상 상영, 8월 2일 11시 13주기 추모예배

오는 8월 2일(금)은 하용조 목사 소천 13주
기다. 온누리교회는 7월 29일(월)부터 8월 2일
(금)까지를 '하용조 목사 추모기간'으로 정하
고, 하용조 목사를 그리고 기억하는 시간을 보
낸다. 추모 기간 온누리교회 국내 모든 캠퍼스
새벽기도회에서는 故 하용조 목사의 생전 <
요한복음> 강해 설교 영상을 상영한다.

설교 주제는 7월 29일(월) '참된 양식' (요
4:27-42), 30일(화)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요 8:12-20), 31일(수) '밀알의 신비'
(요 12:17-26), 8월 1일(목) '길과 진리와 생명'
(요 14:1-7), 2일(금) '베드로를 격려하시는
예수님' (요 21:15-25)이다. 새벽기도회는 서
빙고온누리교회 오전 5시 30분 분당, 양재온
누리교회 오전 5시 30분 사랑홀, 캠퍼스는 부
천, 수원, 대전, 남양주, 평택, 인천, 양지 오전 5
시 30분, 강동 오전 6시 20분, 영종 오전 6시에
각 캠퍼스 분당에서 열린다. 서빙고온누리교
회 2부 새벽기도회는 기존대로 공동체 성경
읽기로 진행한다.

하용조 목사 소천 13주기 추모예배는 8월 2

일(금) 오전 11시 Acts29비전빌리지 하용조기
념채플에서 드린다. 故 하용조 목사 유가족과
온누리교회 리더십을 중심으로 소규모 예배
를 드린다. 박종길 목사가 사회를 보고, 차준
한 장로 대표기도, 블러썬멤버 특순, 이재훈
위임목사 메시지, 유가족 인사, 강부호 목사
축도 등이 이어진다. 하용조 목사 추모예배 실
황을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중계한다.

故 하용조 목사는 지난 2011년 8월 2일 향년
65세로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 故 하용조 목
사는 1976년 한국 최초 연예인교회 개척,
1980년 두란노서원 창립, 1985년 온누리교회
창립, 2005년 CGNTV 설립, 2007년 첫 러브소
나타 개최, 2010년 NGO 더멋진세상을 창립
했다. 저서로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
<나는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 <하용조 목사
의 큐티하면 행복해집니다>, <목숨을 건 일본
사랑 러브소나타>, <사랑하는 그대에게> 등
90여 권이 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하나님과 함께 즐거운 여름방학!

차세대 슬기로운 방학생활
'QT하고 빙수먹자'

온누리교회 차세대가 하나님과 함께 즐거
운 여름방학을 보내고 있다. 차세대 슬기로운
방학생활 'QT하고 빙수먹자'가 8월 17일(토)
까지 이어진다. QT하고 빙수먹자는 차세대들
이 방학 동안 QT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
해지고, 영장 성장을 이루도록 돕는 프로그램
이다.

'QT하고 빙수먹자'에서는 <예수님이랑 나
랑>, <예수님이 좋아요>, <새벽나라> 등 차세
대 QT 교재와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는 영상
을 활용하고 있다. 가족과 함께하는 '가족 QT
모임'도 한다. 참여 일수에 따라 빙수를 선물
로 보내준다. 가족 QT 모임을 포함해서 총 24
번 참여할 수 있다.

차세대 여름캠프도 한창이다. '하나님의 용
사, 다윗!'을 주제로 예수님의꿈아이(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꿈이자라는땅(유년부, 초등
부, 소년부) 여름캠프가 이어지고 있다. 꿈팡
은 8월 11일(일)까지 여름캠프를 하고, 예꿈은
지난 7월 21일(일) 막을 내렸다. 파워웨이브
(중고등부)는 8월 12일(월)까지 '獨對(독대)'
를 주제로 여름캠프를 한다.

/ 홍하영 기자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들!

해외 146팀 2,632명, 국내 229팀 5,573명

온누리교회 여름 아웃리치가 한창이다. 열방을 향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고백하는
간증이 얼마나 풍성한지 모른다. 후쿠오카 아웃리치를 다녀온 오해란 성도(서대문공동
체)는 "열떨결에 참여하게 된 아웃리치에서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게 됐다"고 고백했고, 몽골 아웃리치를 다녀온 이병민 집사(성동광진
공동체)는 "아웃리치에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삶
을 살겠다"고 다짐했다.<관련기사 6-7면>.

2024 온누리교회 여름 아웃리치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을 주제로 8월까지 이어
진다. 해외 146팀 2632명, 국내 229팀 5573명(7월 26일 기준)이 참가할 예정이다.

미디어본부와 <온누리신문>에서 2024 온누리교회 여름 아웃리치 영상과 간증을 모집
한다.

미디어본부에서는 8월 31일(토)까지 온누리교회 여름 아웃리치 동영상 공모전 '찍자,
아웃리치!'를 개최한다. 올해 여름 아웃리치 영상을 60초 미만으로 제작해서 응모하면
된다. 영상에는 비공개 지역이나 노출되지 않아야 할 정보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 제작
영상을 미디어본부 이메일(onnurismart@gmail.com)로 보내거나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온누리아웃리치2024)하면 된다. 1등 50만 원(1팀), 2등 30만 원(3팀), 3등 10만 원(5팀)
상당의 배달앱 상품권을 준다. 위트상(5팀), 은혜상(5팀)에게는 카페 상품권을 준다. 입
상한 영상은 온누리교회 SNS 계정에 게시한다.

<온누리신문>에서는 2024 여름 아웃리치의 생생한 간증과 사진을 기다리고 있다. 매
주 월요일 오후 3시까지 간증(글자 크기 10포인트로 A4용지 60줄)과 사진(사역 사진, 간
증을 쓴 성도 사진)을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면 7-8월 <온누리신문>에 게재
한다. 단체 사진보다 역동적인 사진, 세로 사진보다 가로 사진이 좋다. 사진과 간증을 보
낸 성도들을 추첨해서 소정의 상품을 보내준다.

선교마블 기도탐험대!

CGN 신규 프로그램
7월 29일 공개

CGN 신규 프로그램 '선교마블 기도탐
험대'가 7월 29일(월) 기독교 OTT '풍당'
에서 첫 방영을 한다. 총 10편 제작했고,
편당 15분 내외의 방영한다. 개그우먼 손별
이가 진행한다.

선교마블 기도탐험대는 초등학교 저학
년이 대상인 '선교지 기도여행 프로그램'
이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보드게임 '부
르마블'처럼, 주사위를 던져 나온 숫
자만큼 칸을 이동해 선교지로 향한다. 도
착한 선교지의 기도제목과 듣고, 중보기
도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중보기도가 끝나면 선교지 자리에 교회
를 세우는 것으로 게임을 마무리한다.

선교마블 기도탐험대는 재미있는 게임
으로 어린이들의 흥미를 끌면서 선교지
를 위해 기도하도록 훈련한다. 초대교회
처럼 어린 시절부터 기도훈련을 하고, 선
교지를 위해 중보기도 하면서 다음세대
선교 동역자를 세우는 게 목표다.

/ 홍하영 기자

A Bold Witness for Christ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

주일강단



이재훈 위임목사

우리는 손에 잡히는 것 같이 바로 느끼고 볼 수 있어야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다릅니다. 우리가 때로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특히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가짐으로써 이방인들에게 율법에 짐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더 확신 있게, 더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일을 방해하는 율법적인 그리스도인들의 편협을 막아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두 번째 선교 여행을 계획을 합니다. 첫 번째 전도여행과 다른 상황에서 두 번째 선교여행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선교 여행은 안디옥 교회가 마음을 같이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선교여행은 바울과 바나바 간에 의견 차이로 인해서 두 팀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 요인은 첫 번째 선교여행에서 마가 요한이라는 제자가 함께 여행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단지 조카이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지만, 바나바는 “마가도 함께 데리고 가야 한다”고 주장했고, 바울은 “데리고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의견 차이가 심하게 났고, 서로 대립하며 다른 팀으로 나누기로 한 것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키프로스로 가고,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새로운 팀원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와 함께 새로운 팀을 꾸려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보면 바나바가 얼마나 훌륭한 인격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역시 그는 관계중심적인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가가 1차 선교여행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갔지만, 다시 한번 그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사람이 다시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에서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후에 보면 바울이 마가를 자신에게 데리고 오라고 디모데에게 말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훗날 바울이 누우친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 마가를 품지 못했던 것, 바나바가 옳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말을 디모데에게 합니다. 그때 마가를 제외시켰던 것을 후회하고 누우치면서 자신의 마지막 여정에서 마가를 다시 만나기 원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때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서로 다른 길을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합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길을 내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두

길을 내시는 하나님

사도행전 15:36~16:10

팀으로 나뉘어 선교여행을 가게 되면서 더 많은 영역에 복음을 전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분열은 아픈 일이고 상처지만, 때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할례는 구원의 본질 아닌 방법론

〈사도행전〉의 역사는 물론이고, 그들이 나뉜 이후 바울을 중심으로 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역을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누가가 바울팀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경험한 것만 기록한 것입니다. 바나바팀에 있었던 일을 자신이 기록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울과 실라, 누가가 루스드라에 도착했을 때 거기서 디모데라는 팀원을 합류시킵니다. 루스드라는 1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 한 위기에 처했던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던 도시였을지라도 또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 집념과 끈질김, 포기하지 않고, 오푸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그리스인입니다. 그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바울이 디모데를 자신의 팀에 합류시킬 때 유대인들이 받는 할례를 받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에 그를 데려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유대 사람들 때문에 그에게 할례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들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행 16:3).

의문이 생겨야 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의결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에게 짐을 지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는 것처럼, 이방인에게 할례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바울과 바나바가 주도해서 결의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많은 유대인을 만나게 될 텐데,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사실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마음을 열고 만나주지도 않고, 디모데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을 생각해서 할례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디모데를 공격함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차원, 그들과 교제하기 위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할례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정반대로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바울

의 동역자 가운데 디도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디도 역시 헬라인 출신입니다. 그런데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도록 막습니다. 디도에게는 왜 할례를 받지 않도록 했을까요? 당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디도에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면서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에서는 할례를 받지 않도록 막은 것입니다. 그것을 구원받은 증거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너는 할례 받으면 안 된다”고 한 것입니다.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사역하는 대상자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들이 복음을 듣게 하는 사역의 한 방법으로 할례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할례가 구원의 본질이 아니라 방법론일 따름입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때로 취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내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 철학

“내가 모든 사람에 대해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습니다. 이는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유대 사람처럼 된 것은 유대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나 자신이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된 것은 그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사람이 아니지만 율법 없는 사람들에게 율법 없는 사람처럼 된 것은 그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에게 내가 연약한 사람처럼 된 것은 연약한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어떻게든지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함입니다”(고전 9:19~22).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구약의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나도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았다”는 것을 통해서 그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에 그들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내색할 필요 없이 율법 없는 자처럼 헬라의 문화나 시구를 인용하거나 당시 상가의 말을 인용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구약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구약을 인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구약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에



“갇힌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고 계심을 바라보십시오.
성령님께 귀 기울이며 하늘 문은 항상 열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막힌 문이 열린 문이요, 막힌 문 뒤에 새 길이 있다는 것을 볼 것입니다.”

게는 할례를 받지 않게 하고,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이율배반적이고, 카멜레온처럼 색깔을 바꾸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목적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 철학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결정을 할 때 매우 중요한 것은 이 결정을 함으로써 그 상황을 지켜보거나 내용을 듣는 이들이 더 구원을 얻든지, 그 반대 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데 도움이 되는지, 걸림돌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막힌 문 뒤에 열린 문을 준비하시고, 새로운 길을 여신다

바울, 실라, 누가, 디모데가 한 팀을 이루어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그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아시아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내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유럽 대륙으로 선교 지역이 옮겨지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2차 선교여행과 1차 선교여행과의 또 다른 차이점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1차 선교여행 때는 성령님이 순조롭게 그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2차 여행에서는 성령님이 그들의 계획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대로 문을 열어주시기도 하지만, 계획을 막으심으로 새로운 길을 여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갔으면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위해서 때로 가고자 하는 길을 막으시고, 새로운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가고자 하는 길이 한 번도 막힌 적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적어도 한 두 번, 어떤 분은 여러 번, 가려는 길이 막히는 것을 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나를 버리셨는가?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더 오래 살면서 돌아볼 때 그 때 하나님이 길을 막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나의 계획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막힌 문 뒤에 열린 문을 준비하시고, 새로운 길을 내십니다.

여러 지역 이름이 나옵니다(6-8절). 2차 선교 여행을 다니는 바울의 선교 지역입니다. 바울은 다소, 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등을 통해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남부 지역으로는 다녔는데, 북서쪽으로는 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쪽도 큰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아시아 지역을 복음화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계획은 비두니아로 가는 것이었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곳으로 가는 길이 계속 막혔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바울과 일행들의 걸음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기에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평소 성령님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은 이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평소에 성령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갑자기 “성령님이 나를 막으셨다”고 할 수 없습니다. 평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기에 ‘아, 허락하지 않으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평소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중요한 순간, 위기의 순간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평소에 꾸준히, 매일매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어느 중요한 순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땅 끝을 향해 새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들은 비두니아라는 북서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인도하신 길은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계획에 없었던 곳입니

다. 그들은 북서쪽에 사람들이 더 많은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는데, 성령이 드로아로 인도하셨습니다. 드로아는 항구 도시입니다. 앞이 바다입니다. 드로아에서 보면 바다만 보일 뿐입니다. 당시 바울 일행이 드로아에 가면 땅 끝까지 간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이 더 많이 있는 곳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드로아가 없었습니다. 그곳이 바닷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바다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할 때 사실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더 빠른 경로가 있었습니까. 빠르고 안전한 길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은 홍해 앞바다였습니다. 길이 아니었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서는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앞뒤가 막힌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홍해 앞바다로 인도하셨습니다. 왜 그 길로 인도하셨을까요? 바다를 가르시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다를 가르고 길을 내실 수 있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려고 홍해 앞바다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울 일행을 드로아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길은 막힌 길과 같았지만, 하나님은 막힌 길을 통해 새로운 길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때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한밤중에 바울은 마케도니아 사람이 서서 ‘마케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소’라고 간청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확신하고 즉시 마케도니아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9-10절).

마케도니아는 오늘의 유럽 대륙입니다. 빌립보는 유럽 대륙의 관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아를 땅 끝이라고 생각하는 바울 일행을 유럽으로 부르셨습니다. 더 큰 일로 부르

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땅 끝을 향해서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계속 땅 끝을 향해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온누리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용조 목사님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사역이 늘어나고, 영역이 확장되고, 온 세상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CGN 방송선교를 통해 온 세상을 바라보도록 하였고, 로잔대회를 통해 전 세계 복음주의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대회를 섬기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누구의 명예를 위해 유치하고, 어떤 이익을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땅 끝을 향하여 하나님이 계속해서 온누리교회의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빌립보는 역사적으로 로마 제국이 첫 번째 시작한 도시입니다. 알렉산더대왕이 세계 정복의 출발점으로 삼은 곳이기도 합니다. 알렉산더대왕의 아버지 이름이 빌립입니다. 그 이름을 따서 도시의 이름을 ‘빌립보’라고 지은 것입니다. 빌립보에서의 승리가 로마 제국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시작이었던 도시에서 하나님은 유럽 복음화의 시작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를 통해서 유럽 대륙에 복음이 전해지고, 데살로니가와 고린도 여러 지역에도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생각할 수도 없었으며,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빌립보라는 도시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땅 끝을 향하여 계속해서 새로운 길을 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는 더 큰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궁지에 몰아넣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삶이 갇힌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놀랍고 새 일을 행하시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며 하늘 문은 항상 열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늘을 향해 기도하면 막힌 문이 열린 문이요, 막힌 문 뒤에 새로운 길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 - 정치

정치는 사랑, 하나님 이름 높이는 것

“기독교인이 왜 세상 정치에 관여하느냐?” 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야말로 정치에 관여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정교분리’라는 개념은 국가와 정치가 종교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교회가 정치에 발언이나 간섭하지 말고, 참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이념, 정치 성향, 소득 격차, 세대, 지역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세상에 화평의 직분으로(고후 5:18) 사명을 받은 기독교인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관점에서 어떤 심정과 태도를 보여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특히 세대와 지역을 초월해서 세상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지혜를 모으고 결단하는 2024 서울-인천 제4차 로잔대회를 즈음해서 더욱 그렇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고, 은혜로 구원받아 세상에 속하지 않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사회 갈등을 해결하는 영역인 정치를 바라봐야 한다. 정치는 흔히 갈등과 대립의 장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정치는 본질적으로 사회구성원을 하나로 통합하는 예술이자 사랑이다. 따라서 이해, 배려, 통합,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요일 4:16)”라는 공통적인 고백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사랑과 함께 공의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미 6:8). 그것은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마 16:19)는 말씀을 이루는 것이기도 하다.

정치 참여를 통해 투표, 공직 출마, 논객 활동, 불법과 악법에 항거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신앙을 표현해야 한다. 동성애를 부추기는 차별금지법, 하나님이 주신 천륜과 인륜, 가정을 파괴하는 가정건장법, 기독교 교육을 통제하려는 사립학교법 등 악법의 제정 또는 폐기하는 것도 우리가 뽑은 정치인이 하는 것이기에 그들을 투표로 뽑는 것도 정치 행위다. 세상 사람들은 진보와 보수를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보 편도, 보수 편도 아니다. 하나님 편임을 기억해야 한다. 인본주의자(신본주의와 반대되는 비기독교인), 특히 사회주의자들은 ‘자기의’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인간이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는다. 그들의 행동은 분노이고, 선동이고, 날카롭고, 시끄럽다. 하지만 크리스천들은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킨다. 그 과정도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운유하고, 부드럽고, 따뜻하다.

인본주의가 심화한 사회주의 좌파의 목적은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 왕국을 만드는 것이다. 소수의 지배계층이 권력을 독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집단주의와 강력한 정부 개입을 통해 결과적, 산술적 평등을 추구한다. 성소수자(성 정치), 여성(페미니즘), 인권, 소수 인종, 환경보호라는 단어를 만들고 선동한다. 그렇게 새로운 권력을 만들어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예를 들어 그들이 하는 성 정치의 관점을 말하면 “기존의 성은 문화와 관습 그리고 남성의 지배적 지위로 인해 학습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성정체성을 인간이 선택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패륜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인하는 이데올로기다.

기독교 세계관은 각 개인을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창1:27) 받은 차별 없는 존귀한 존재로 규정한다. 각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설계도 모형이며, 어떤 일이 있어도 보호되고 지켜져야 한다(창 2:24, 엡 5:22-33). 경제는 시장경제로서 성실한 노동(잠 10:4, 12:11)과 정직한 거래(신 25:13-16)와 자선과 나눔(히 13:16)을 강조한다. 정부는 ‘작은 정부’로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갈5:1)를 지켜야 한다. ‘시장’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본주의자들의 착취를 사랑의 공동체로 바꾸는 공간이다. 이처럼 모든 삶을 규정하는 정치 영역에서 성경의 가르침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스도인은 정치 참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온누리교회에서 매년 6월 열리는 ‘마리아행진’에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국가의 모든 영역을 위해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있다.

온누리교회 ‘온누리세계관학교’는 성도들에게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하면서 성경적 가치를 삶의 각 영역에서 실현하도록 돕고 있다.

크리스천은 세상을 보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이 필요하다. 정치 참여가 중요하지만, 복음의 메시지보다 앞서면 안 된다. 정치적 활동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 곧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을 위해서만 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정치는 그 사명을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서로 다른 이념으로 싸움이 있는 것은 대개 정파 간의 싸움이 아니라 하느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엡 6:12), 우리 안의 바알과의 싸움이다. 그 과정에서도 사랑과 진리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정치적 논쟁 속에서도 상대방을 존중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화해와 협력을 추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크리스천의 향기가 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치는 하나님의 공의를 하수같이 이 땅에 흐르게 하는 것(암 5:24)이되,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롬 12:15) 것이다. 곧 정치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는 것이다.



함일성 장로
(수원온누리교회)

특별기고

‘결혼할 권리’가 어떻게 ‘자녀에 대한 권리’가 되었는가?

2013년 ‘에이미 데이빗슨 소킨’은 캘리포니아주 헌법개정안 8호(결혼을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법적으로 정의하도록 한 주 헌법개정안)에 관한 연방대법원의 공개 변론을 취재하고 있었다. 소킨은 <뉴욕>에서 헌법개정안 8호를 변호하는 ‘찰스 쿠파’ 변호사와 ‘엘레나 케이건’ 판사 사이의 논쟁을 묘사했다. 쿠파는 정부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결혼을 보호해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킨은 쿠파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만약 국가가 아이들을 보호하기를 원했다면, 일부 남녀 동성연애자들이 동성 관계를 맺기 전에 가졌던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동성혼을 인정해야만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국가는 소위 ‘동성혼’을 긍정해야 할 ‘아이들과 아무 관련이 없는 다른 설득력 있는 이유’도 많다고 했다.

그로부터 10년이 채 지나지 않은 오늘 <뉴욕> 본사 뒷마당인 뉴욕주에서 고용 차별을 주장하는 동성애자 커플이 법원에 또 다른 소송을 제기했다. 그들의 건강보험은 대리모를 고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가디언>의 설명에 따르면, 그 남성 중 한 명

이 예전에 뉴욕에서 일했는데 그의 건강보험에는 여성 직원들에 대한 체외수정 비용이 보장되어 있었다. 이 동성애자 커플에 따르면 그들은 고용주가 비용을 지원하는 임신을 할 자격이 있으며, 만약 그들이 그것을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결혼했고, 그에 따른 모든 측면(집, 자녀, 퇴직연금)을 원했다”고 남성 커플 중 한 명이 말했다. 그의 진술과 소송, 그리고 성 혁명으로부터 하부로 내려오는 문화의 많은 부분에 일관되게 내재된 주장이 욕망과 권리가 같다는 것이다.

거의 10년 전, 찰스 쿠파 변호사가 주 헌법개정안 제8호를 옹호하는 주장을 펼쳤을 때 그는 결코 동성애자들이 아이들을 원하는 것이 혐오스럽거나 부자연스럽다고 하지 않았다. 오히려 결혼의 법적 정의를 보호하는 것을 신경 썼고, 많은 사람처럼 만약 국가가 결혼을 법적으로 생식 기능에서 벗어나게 만든다면 성인들은 곧바로 자녀가 친부모에 대해 갖는 권리를 위협할 요구를 하게 될 거라는 점을 인식했다.

문화적 미적분은 다음과 같다. ‘동성혼’을

가능하게 하려면 결혼과 자녀는 상호 정말 아무런 상관도 없다는 주장이 나와야 한다. 난자와 정자 기증, 체외수정, 대리모 같은 기술은 생식이 가능한 이성 간의 연합 관계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도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이 조건이 확보되면 이제는 결혼과 자녀는 정말로 함께 가는 것이며, 자녀는 결혼에 ‘따라오는 모든 측면’ 중 하나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일단 동성 관계가 법적으로 결혼이라고 불리고, 이성 간의 결합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아이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가능해지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동성 관계를 의도적으로 선택한 사람들이 아동이나 다른 차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것이다.

이 차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남성은 <가디언>에 “우리 가족은 엄마는 없는 가족이 될 것이다. 나는 그것을 불편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물론 엄마가 없는 가족은 없다. 만약 그런 게 있었다면 그들이 ‘어머니’에 접근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물론 그 어머니는 페이스북이나 집 벽에 걸려 있는 가족사진에서는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우리의 기술이 생식 과정을 다른 방, 실험실, 또는 페트리 접시에 넣는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필요하다. 바로 이것이 상황의 심각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차별이라고 부르고, 우리의 욕망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한탄할지 모르지만, 그 여인을 ‘대리모’라고 부른다 해도 모든 아이는 엄마가 있다. 대리모 계약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모든 금액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그 아이를 어머니로부터 떼어놓는 것은 어머니뿐만 아니라 그 아이로부터도 근본적인 무언가를 훔치는 것이다. 많은 기독교인이 결혼에 대한 법적 정의를 바꾸는 것을 용감하게 반대해 왔다. 10년이 지난 오늘날 여전히 우리는 자녀들이 친어머니와 친아버지에 대해 가지는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위한 싸움을 멈춰서는 안 된다.

/ 존 스톤스트리트(척 콜슨 기독교세계관 센터 대표, 브레이크포인트 진행), 마리아 배어(기자, 작가, 팟캐스터, 브레이크포인트 디스워크 공동 진행자)

원문: breakpoint(20220311)

로잔운동 기획시리즈 - 로잔의 오해와 진실

그들은 왜 로잔을 공격하는가? ②

박형진 교수가 답하는 ‘로잔의 오해와 진실’

2024 서울-인천 제4차 로잔대회(이하 제4차 로잔대회)를 앞두고 교회 안팎에서 로잔운동과 제4차 로잔대회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과 근거 없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온누리신문>에서는 로잔운동과 제4차 로잔대회에 대한 성도들의 궁금증과 오해와 진실 등을 묻고 답하는 코너를 마련했다. 로잔운동과 제4차 로잔대회의 의미와 유익 등을 제대로 알리는 목적이다. 박형진 교수(로잔연구교수회, 햇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선교학)가 질문에 답했다.

/ 편집자 주

로잔에서 표방하는 사회적 책임이 전도의 우선성을 훼손하는 게 아닌가?

“이 질문을 지나치게 이원화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 로잔 언약 제5항은 이렇게 말한다.

‘때로 전도와 사회 참여를 서로 상반된 것으로 여겼던 것을 뉘우친다. 물론 사람과의 화해가 곧 하나님과의 화해는 아니며 또 사회 참여가 곧 전도일 수 없으며 정치적 해방이 곧 구원은 아닐지라도, 전도와 사회 정치적 참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의 두 부분임을 인정한다. 이 두 부분은 모두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교리와 이웃을 위한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순종을 나타내는 데 필수적이다.’

로잔은 전도와 사회참여의 중요성을 유기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이를 혼동해서 사용하지 않는다. 로잔언약은 제4항에서 전도에 관해 분명히 설명하고 있다.

‘전도는 기쁜 소식을 널리 전파하는 것이며,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죽은 자들 사이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로서 지금도 회개하고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성령의 은사를 공급하신다는 것이다.’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복음의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전하는 메신저의 삶이 복음에 합당하지 못할 때 복음 전도가 오히려 방해받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도하다 보면 더욱 공감하는 부분이다. 로잔의 복음주의는 그동안 등한시한 영역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적으로 복음을 증거하지는 것이다. 거기에 로잔의 가치가 있다. 사랑이 없는 복음만의 외침, 복음이 빠진 사랑만의 행위 모두 로잔정신과 어긋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선포한 복음 메시지(눅 4:18-19) 그대로 복음전파와 귀신을 쫓으심과 병 고침(마 4:23, 마 10:1)의 사역을 총체적으로 하셨음을 보여준다. 로잔의 전도신학은 해방신학과 같이 부자를 정죄하고, 가난한 자를 대변하는 이데올로기와 다르다. 예수님은 부자 삭개오에게 다가가기를 마다하지 않으셨고(눅 19:1-10), 향유를 부은 여인을 나무라며 가난한 자를 위하는

척하던 유다의 편에 서시지도 않았다(요 12:1-8). 예수 그리스도는 모두의 주님이시고, 모든 죄인을 사랑한 구주셨다. 역사적으로도 영국에서 일어난 복음주의운동이나 미국의 대각성 운동은 영적 각성과 부흥은 물론이고, 노예제도 폐지, 교육기관의 발전, 자선단체들의 출현과 사회개혁운동으로 이어졌다. 어느 것도 전도의 우선성을 훼손했거나 사회 변혁에 무기력하지 않았다. 진정한 사랑에 기초한 복음은 이처럼 전도와 사회적 책임을 분리하지 않는다.”

왜 로잔운동은 차별금지법을 강하게 반대하지 않는가?

“로잔운동은 ‘왜 차별금지법을 강하게 반대하지 않거나 침묵하는가’라는 비판이 있다. 사실이 아니다. 차별금지법에 나타난 동성애자와 같은 성정체성에 관련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남을 로잔 문서에서 분명히 반박하고 있음을 밝힌다. 침묵에 관한 것도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차별금지법에 있는 독소조항들이 법률로 제정되려는 일에 한국에서 주요 교회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저항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다행스럽고, 고무적인 일이다. 근래 온누리교회, 영락교회, 순복음교회 등 한국의 대표적인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솔선해서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일인시위를 담대히 행한 사실은 이러한 침묵에 대한 주장을 일축시킨다.

더불어 한국로잔위원회와 행동하는 프로라이프가 주관해서 2021년부터 해마다 사순절 기간에 ‘생명존중주간’을 정하고, 낙태와 같이 창조질서에 위반되는 일들에 대해 캠페인을 벌이며 세미나와 기도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 대두된 안락사 문제와 이것을 법으로 제정하려는 추세에 한국로잔위원회는 분과위원회에 생명위원회를 신설하고 반성경적 추세에 대응하고 있다. 따라서 로잔운동이 차별금지법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이 침묵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자들은 오히려 국제로잔 본부가 침묵하고 있고 행동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차별금지법이란 이름의 움직임은 우리나라에서 대두되고 있는 특정한 이슈다. 이 문제는 한국 교회의 책무이다. 그 의미에서 이

번 제4차 로잔대회에서 여러 이슈를 다룰 때 적절한 플랫폼에서 논의하고, 앞으로도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역할을 감당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 로잔대회에 복음주의 신학과 다른 논선을 가진 교단과 단체가 참여했다는 주장이 있다. 그 주장에 어떻게 답할 수 있는가?

“로잔에 대한 우려와 비판 가운데 2010년 케이프타운에서 있었던 3차 대회 때 가톨릭, 정교회, WCC 대표들이 참석했고, 심지어 일부에서는 그들의 숫자가 1,000명이나 되었다고 한다. 3차 대회 참석자 4,000여 명 가운데 소수의 가톨릭과 정교회 전통의 참관인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들의 숫자가 1,000여 명이나 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참관은 종교통합을 도모하거나 종교다원주의를 표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게 아니다. 복음주의에 기반한 로잔의 정신이 그들과도 소통되고, 공유되고자 하는 취지였음을 밝히고 있다.

복음주의자들의 정의는 교단을 따른 정의가 아니다. 그 핵심가치는 장로교를 비롯한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등 여러 교단과 공유한다. 마닐라 선언은 온 교회와 관련된 섹션의 제9항 ‘전도의 협력’에서 교회 간 연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신약 성경에는 전도와 연합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예수님은 세상이 자신을 믿도록(요 17:20-21) 하기 위해 자신이 성부와 하나됨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셨다. 또 바울도 빌립보 교인들을 권면하며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빌 1:27)고 했다.’

로잔문서 어디에도 로잔운동이 종교 간 통합을 목적으로 한다거나 종교다원주의를 지향한다는 것을 표방한 게 없다. 로잔은 세계 복음화를 목적으로 모인 복음주의자들의 운동이지 교단을 대표하는 조직체도, 신학 사상을 대변하는 신학기관도 아니다. 그러기에 성경적 진리가 손상되지 않는 한 복음주의의 가치와 세계 복음화의 목표에 동의하는 자들이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모일 수 있다.”

로잔 무용론이 제기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더불어 로잔의 유익과 긍정적 영향과 기대를 설명해달라.

“무용론을 제기하는 자들이 로잔이 그 본래 목적을 상실하고 본질을 벗어났다고 보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한국에서 개최될 제4차 로잔대회 또한 화려한 말 잔치나 돈 잔치 이벤트성 대회에 불과할 것이라는 생각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제4차 로잔대회를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긴요한 처방전 기회로 삼는다면 유익과 긍정적 기대를 해볼 수 있다.

한국 교회는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고, 한국 사회 또한 경제 대국의 반열에 올랐다. 하지만 이러한 양적, 물적 성장 이면에 자성하고 회개해야 할 어둠의 요소가 너무 많다. 물질적 가난과 주립은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의 성장을 향한 열망을 일으켰다. 거기에 민족 복음화의 열정과 전도 또한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가 안팎으로 지탄받는 이유는 복음대로 살지 못하고, 제자도의 삶에서 실패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로잔 50주년을 맞아 한국에서 열리는 제4차 로잔대회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교회사에 나타나는 어떠한 운동도 그 처음의 정신을 보존하고, 50년을 넘기기가 어려웠다. 여러 운동(예: 대각성운동, 학생자원선교운동 등)이 그 실태를 보여준다. 그렇다면 로잔운동도 그 기로에 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다소 오해가 있더라도 로잔을 우려하는 자들의 염려를 존중한다. 로잔이 전도의 우선성을 잃었다면 한국 교회가 이를 회복하는 운동이 되기를 기대한다.

동시에 이번 제4차 로잔대회의 주제가 그리스도를 선포(declare)할 뿐만 아니라 ‘나타내자’(display)이다. 이는 곧 제자도의 삶을 의미한다. 그동안 한국 교회가 실패한 영역이 바로 제자도의 삶이다. 이와 무관치 않은 또 하나의 실패는 바로 연합 정신이다. 한국 교회의 교단이 분열된 배경에는 WCC의 문제가 있었다. 로잔이 강조하는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서 더 침예하게 대립하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무는 복음을 훼손하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복음을 더 복음 되게 하는 일이다. 한국 교회가 극복해야 할 영역은 비본질적인 일로 대립하고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행보다.

로잔은 신사도운동이 표방하는 잘못된 개념들에 동의하지 않지만, 본질적인 성령사역과 인도하심에 열려 있는 운동이다. 1900년 초 원산을 시작으로 평양 그리고 전국 각지로 번져나간 운동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 인한 회개의 역사였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외치신 것은 바로 ‘회개하라’였다. 이번 로잔대회는 과거의 명맥을 유지하고 기념하는 자축 행사가 아니다. 한국 교회에 다시 한번 영적 대각성의 불씨를 일으키고, 한국 사회에 변화의 매개체가 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로잔대회로 끝서는 안 될 것이다. 로잔의 DNA가 온전히 발현되어 그 목표를 이룰 때까지 지속해야 할 출발선으로 삼아야 한다.”



박형진 교수
(로잔연구교수회, 햇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선교학)

서대문공동체
일본 후쿠오카

올해 서대문공동체 후쿠오카 아웃리치는 기묘하게 시작되었다. 이미 준비가 다 끝난 아웃리치팀에 출발 2주 전에 합류했기 때문이다. ‘아웃리치를 이렇게 준비 안 하고 떠난 적이 없는데’, ‘동행하는 공동체 성도들을 잘 알지도 못하는데’라는 염려가 있었다. 하지만 그것보다 ‘왜 가게 된 걸까?’라는 의구심이 앞섰다. 그도 그럴 것이 나의 상황이 벼랑 끝에 매달린 상태로 곧 추락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아웃리치를 떠나기 전 영화 ‘사일런스(침묵)’를 보고 오라는 공지가 있었다. 사일런스는 천주교 박해가 한창인 17세기 일본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왔던 예수회 선교사들의 이야기다.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가장 극단의 상황을 그렸다. 아웃리치 일정에 나가사키 순교지 탐방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다. 누구나 신앙생활 중에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침묵에 크게 상처 받고 나도 침묵으로 대응했던 지난날이 떠올랐다.

일본 후쿠오카에 도착해서 프레이즈란도 교회로 향했다. 산자락에 있는 교회에서 이형석, 서우숙 선교사님 부부가 환한 얼굴로 우리를 맞아주셨다. “일본 교회의 부흥을 기도로 뿔겠다”는 선교사님의 말씀이 매우 인상적이었는데, 부르짖는 기도를 이상하게 여긴 현지 주민들이 신고해서 교회가 산까지 올라온 것이라고 하셨다. 그곳에서 우리는 조를 나눠 노방



서대문공동체 아웃리치팀이 일본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전도, 기도실 터 작업, 위생, 찬양, 주방사역 등을 했다. 나는 숲속 기도실에서 중보기도를 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일본에 대한 비전을 받았다. 서구 열강들이 약소국들을 식민지 삼던 제국주의 시대에 일본은 서구 열강을 배우고, 서구의 구심점인 기독교를 대신할 것을 찾던 중에 일왕(일명 천황)을 기축으로 삼기로 했다. 그렇게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이 2차 세계 대전 패망으로 나라가 끝나는 것 같았는데, 한국전쟁 특수로 재기에

성공했다. 그리고 일본이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 80년대 정점에 올랐다. 하지만 버블이 꺼지면서 이른바 잃어버린 30년을 맞게 된다. 최근 들어 일본 경제가 달라지고 있다는 관측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일본의 20~30대는 성장기에 온갖 우울한 일을 경험했다. 실업, 무차별 테러, 2011년 동일본 대지진까지. 2020년 도쿄 올림픽마저 코로나19로 인해 역대 최고의 적자를 기록했다. 국운이 꺾였다는 분위기 속에 일본의 20~30대는 대체로 무기

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본의 젊은 세대에 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게 한국 대중문화다.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 역시 이전 세대와 비교해서 일본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크지 않다.

일본 땅에서 일본의 영혼을 향해 기도하면서 일본이 이웃 나라 한국의 기도로 예수님께 돌아온 나라가 될 거라는 하나님의 비전이 생겼다. 하나님께 “다른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라”는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다.

신앙생활하며 가장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침묵일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다. 아무 말도 들리지 않는다면 멈춰 서서 기도하며 기다리면 된다는 것을 말이다. 그 오랜 시간 하나님이 일본에 대해 침묵하신 것 같았는데, 우리나라를 준비시키셨던 게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은 고통이 아니라 은혜다.

아웃리치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왔다. 여전히 나는 벼랑 끝에 매달려 있다. 하지만 떨어질까 두렵지 않고, 매달려 있는 게 버겁지도 않다. 극한의 일본 땅에서 ‘오직 기도’의 메시지를 얻었고, 기도는 매달려 있어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기도하고 기다릴 것이다.



오혜란 집사
(서대문공동체)

강동 동서울C공동체
충남 보령

우리 부부는 2021년 하남으로 이사했다. 강동온누리교회에는 지난해 왔다. 그전에는 양재온누리교회 브릿지33+공동체에 속해 있었다.

강동온누리교회 아웃리치에는 지난해 처음 참석했다. 강원도 홍천 유치리로 갔었다. 지난해 아웃리치는 모든 게 낯설었고, 전도팀에 속해서 땀방울과 무더위에 정신없었던 기억이 있다.

그래도 돌아보면 한순간 한순간이 큰 은혜였다. 우리 부부는 지난 1년여 동안 장로님, 권사님, 순장님, 집사님, 공동체 식구들의 사랑과 도움으로 잘 적응하고 정착했다. 그리고 올해 두 번째 아웃리치를 떠났다.

올해 아웃리치에 참여하면서 처음으로 아웃리치를 위해 기도하게 되었다. 전체 기도회에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단톡방에 권사님이 올려주시는 기도제목들 함께 나누기도 하고, 아내와 함께 집 근처 새로 생긴 교회에 가서 아웃리치를 위해 기도했다.

스스로, 그것도 먼저 아웃리치를 위해 기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 아웃리치를 준비하고 기도하는 동안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음을 느끼기도 했다.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에도 기도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린다.

올해 강동 동서울C공동체 아웃리치는 충남 보령으로 떠났다. 그곳에서 나는 마을청소팀



하나님의 총명한 은혜를 함께 느끼고 나는 강동 동서울C공동체 아웃리치팀과 미산중앙교회 성도들.

을 섬겼다. 아내는 달란트를 살려 찬양팀을 섬겼다. “아내는 반주자니까 기능인이고, 나는 비기능인으로 청소팀 일원이 되었나 보다”라고 농담을 주고받으며 충남 보령의 시골 끝자락에 있는 미산중앙교회로 출발했다. 다행히 아웃리치 당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좋은 날씨로 아웃리치팀이 준비한 모든 것을 실행할 수 있었다. 단 하나의 사역팀도 빠짐없이 섬길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다. 식사팀, 공연팀, 찬양팀, 전도팀, 마을청소팀 모두 하나 되어 잘 다

녀운 것 같다. 모두가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땀을 흘리면서도 자기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면 나는 조금 게을렀던 것도 같다. 다음 아웃리치에는 더 열심과 최선으로 임해야겠다.

아웃리치를 준비하면서 사고 없이 잘 다녀오는 것과 모두의 하나 됨이 아웃리치팀 모두의 계속된 기도제목이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은혜와 사랑, 감동, 먹거리까지 가득했던 총명한 아웃리

치였다. 아웃리치를 마치고 늘어난 내 몸무게가 그 증거다.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 주신 식사팀에게 감사하다.

아웃리치의 목적은 선교에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를 통해 마을에 복음이 전파되고, 어르신들이 하루빨리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기도한다. 충남 보령 미산중앙교회 목사님도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 힘과 용기를 얻으신 것 같다. 전도의 기회가 생기고, 조금씩 마음이 열리는 마을 어르신들을 보면서 기뻐하셨다. 목사님의 목회에 작게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했다. 마을잔치에 참여하신 어르신들을 보면서 재계년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났다. 아버지는 요양병원에 계시면서 의식이 살아있을 때까지 환하게 웃으시면서 병실의 환자들에게 이렇게 전도하셨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열어 주셔서 충남 보령 마을 어르신들 모두에게 그 말씀이 들어가기로 기도한다. 우리의 섬김이 복음을 위해 쓰임 받도록 하나님의 총명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한다.



이원 성도
(강동 동서울C공동체)

아웃리치 목적은 선교!

성동광진공동체
몽골

큰 도전과 은혜

5박 6일 몽골 치유사역 아웃리치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나누고 싶다.

성동광진공동체 몽골 아웃리치팀은 몇 달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금식과 릴레이 기도를 하면서 아웃리치를 준비했다. 그 덕분에 더운 날씨와 많은 악조건,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기는 했지만, 몽골 교회 성도들과 현지인들을 위해 식사 테이블보와 꽃 한 송이 하나까지 준비하고, 선물 하나하나를 포장하며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었다.

사역 첫날, 치유사역을 하면서 아픔이 많은 몽골의 지체들을 만났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 혼과 폭력, 경제적 어려움, 암과 여러 가지 질병이 한 번에 달려들어 어려움을 호소하는 몽골 지체들을 보면서 함께 울었다. 서툰 몽골어지만 찬양을 함께하며 기쁨을 나누기도 했다. 이틀 동안 오은규 목사님이 진행한 치유사역 프로그램을 통해 가슴 밑바닥에 있던 이야기까지 나누며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깊이 느낄 수 있었다. 치유사역에 많은 사람이 참석해서 말씀과 찬양,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 준비해 간 미술 치유 프로그램을 하면서 서로 아픔을 드러내고, 나누며,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다. 함께 찍은 사진을 공유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



몽골 현지 가정을 방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 성동광진공동체 아웃리치팀.

는 분들도 많았다. 몽골 지체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심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틀 동안 이어진 치유사역 프로그램 이후 우리는 팀별로 여러 가정을 방문해서 그들이 겪는 아픔과 상처를 들었다. 어떤 가정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불화로 고통받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아팠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 우리

는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필요한 물품을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다.

미혼모인 한 어머니와 세 아이가 사는 가정을 방문했다. 한국에서 온 손님들을 위해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예배에 참석하고, 손님을 대접하는 손길을 보면서 오히려 우리가 은혜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오랜 시간 병상에 누워 계신 어머니를 간호하는 자매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간구했다. 치유사역과 가정방문을 통

해서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각 가정을 만지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이번 아웃리치는 큰 도전과 은혜의 시간이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섬김과 기도를 통해서 큰일을 이루셨다. 많은 가정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다. 어렵지만 묵묵히 그 길을 가고 계신 선교사님을 통해서 몽골 현지인 목회자가 늘어가는 하나님의 계획도 봤다. 짧은 30년 선교 역사에도 불구하고, 현지인 중심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몽골을 위해 기도했다. 전체 인구 2% 정도의 복음화율이 더 늘기를 소망한다. 몽골 현지 목회자들이 주도하고, 자립하고, 자치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했다.

마지막 날 저녁, 쏟아지듯 다가오는 몽골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창세기>에 적힌 하나님의 약속과 <다니엘>의 약속이 내 마음에 자리 잡았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다 12:3)이 말씀을 새기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했다.



이병민 집사
(성동광진공동체)

성북공동체
강화도

성령과 사명

올해 성북공동체 국내 아웃리치는 ‘성령과 사명’을 주제로 강화도에서 진행했다. 2017년부터 1다락방1사역으로 섬기는 광탄열방교회 네팔 이주민 노동자들을 섬겼다. 연합성령수련회와 의료 봉사, 섬김과 교제 등을 했다. 그리고 올해는 국내 아웃리치로 방문하게 됐다. 이번 성북공동체 국내 아웃리치에는 성북공동체 성도 98명, 고려대학교 간호대학원 의료 봉사자 6명, 광탄열방교회 목사님 부부, 네팔 이주민 노동자 18명 등 총 122명이 참석했다. 함께 모여 은혜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첫날 강화도 숙소로 가는 길에 ‘강화기독교 역사기념관’을 방문했다. 봉사는 목사님들의 친절하고 상세한 설명을 들으면서 강화도의 기독교 역사를 알게 됐다. 역사적으로 많은 아픔을 겪었던 강화도에 1893년 복음이 전해졌고, 현재 210개 교회가 있기까지 역사를 감명 깊게 들었다. 각 지역마다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할 수 있었다.

아웃리치 첫 번째 순서는 변대섭 목사님의 특강이었다. 변대섭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명, 이해와 분별’을 제목으로 특강을 하셨다. 공동체 성도 모두가 사명을 이해하고, 내게 주신 사명을 분별하고, 재발견하는 시간이었다. 성도들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묵상하는 귀한 시간도 가졌다.

두 번째 순서는 김영욱 장로님이 ‘큐티와 사



성북공동체 아웃리치팀이 광탄열방교회에서 네팔 이주민들과 교제하며 복음을 전했다.

명’을 주제로 특강을 하셨다.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각자의 사명을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큐티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나에게 하라하신 사명은 무엇이고,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깨닫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성북공동체는 2017년부터 광탄열방교회 네팔 이주민들을 섬기고 있다. 공동체 다락방 연합으로 꾸준히 한두 달에 한 번씩 열방교회를 방문해서 이주민들과 함께 부활절 연합예배,

새생명 전도축제, 추수감사절 연합예배, 식사 교제, 말씀 전도, 지역 노방전도(광탄시장, 금촌역 등) 등을 했다. 매년 공동체 주관으로 여름 특별사역을 장봉도와 강화도 등지에서 했다. 지난해 강화도 열방교회와 함께 한 국내 아웃리치에서 많은 은혜와 열매가 있었다. 올해 아웃리치에서는 의료사역팀을 구성해 광탄열방교회 네팔 이주민 노동자들에게 건강검진과 치과 진료 등을 해줬다. 한금선 권사님(고려대 간호학과 교수)이 대학원생들과 진행

한 대사증후군 검진, 최윤정 순장님(치과의사)의 치과 검진 등을 통해 네팔 형제들의 건강을 돌보는 실제적인 지원을 했다.

네팔 형제들을 위해서 민머루해수욕장도 방문했다. 함께 캐노피텐트를 치고, 공동체 성도들과 물놀이를 하고, 간식을 먹으면서 교제했다. 저녁 간식시간에는 일대일로 복음을 전하며 교제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히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섬겼다.

열방교회와 연합으로 개최한 성령수련회에서는 성북공동체 찬양팀과 네팔 형제들의 감동적인 찬양을 들을 수 있었다. 광탄열방교회 유병설 목사님의 말씀과 공동체 성도들이 네팔 형제들을 품은 뜨거운 기도회에서 성령의 역사를 느낄 수 있었다. 복음과 신앙의 핵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와 감동의 시간이었다. 함께 기도하고, 교제했던 감격이 여운으로 깊이 간직되었다. 네팔 형제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었다. 무사히 아웃리치를 마쳐서 감사하다. 아웃리치 참가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린다.



박복웅 집사
(성북공동체)

생명의 가치와 존엄한 죽음

1. 안락사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2.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의 해외 현황과 부작용 3. 안락사의 실체와 의학적 문제점
4. 안락사 법안의 선행 과제 5. 성도의 죽음과 임종기 돌봄의 실재

안락사 법안의 선행 과제

‘죽을 권리’와 ‘생명의 권리’의 세계관 전쟁



문지호 집사
(한강공동체, 성산생명윤리연구소 부소장)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되었던 ‘조력존엄사법’이 2024년 7월 초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었다. 지난 2022년 안규백 의원이 조력존엄사법을 발의했을 때 여러 전문가가 ‘존엄사’라는 용어를 붙이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안락사 및 조력자살 법안을 발의하며 ‘존엄사’라는 용어를 붙여서 마치 자살이 존엄하다는 혼동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 의원은 같은 이름의 조력자살 법안을 다시 발의했다.

통상적으로 존엄사의 의미는 삶의 마지막 순간에 불필요한 의료에 집착하지 않고, 내게 허락된 마지막 호흡에 최선을 다하고 자연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치사 약물을 먹고 자살하는 것을 존엄하다고 할 수 없다. 안 의원은 조력자살 법안을 발의하며 2년 전 시행한 설문조사를 다시 언급했다. 말기 환자의 경우 조력존엄사법을 도입해서 삶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증진하지는 입법에 찬성하느냐는 것이었다. 이 질문에 국민 82%가 찬성해 발의한다며 입법 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존엄’이나 ‘자기결정권 증진’ 등의 긍정적 단어를 강조해서 찬성 답변을 유도한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좋은 설문이 되려면, 말기 환자의 경우 약물로 자살하거나 안락사를 선택하겠다고 정확히 물어야 한다. 그리고 법안 이름도 조력자살 또는 안락사법이라고 해야 혼란이 없다.

이 법안의 골자는 개인의 조력자살을 허용하며, 이를 도운 의사의 자살방조죄를 면해주자는 것이다. 이 법안은 몇 가지 문제가 있다. 먼저 조력자살을 원하는 대상자가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는데, 위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이다.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은 OECD 최대 자살국인 대한민국에서 자살 예방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자살 예방을 담당하는 수장에게 자살 허가를 맡으라는 우스운 꼴이 되었다. 그리고 이 법안에서는 국가와 지자체에 조력자살을 위해 사회·문화적 토대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환자의 자살을 도운 의사의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는 지침을 개발해 보급하라고 했다. 자살을 돕는 사람이 불안정한 심리에 빠지는 나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 조력자살 문화는 조성하라고 하니 상당히 어색하다. 이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만일 조력자살을 택한 사람들이 정말로 존엄함을 누리게 된다면 법안을 마련해도 좋다. 하지만 이미 조력자살 및 안락사를 택한 나라들에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을 전 세계 사람들이 보고 있

다. 조력자살 시도 중 깨어난 치매 환자에게 억지로 약을 먹여 죽게 한 일이며, 우울증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은 환자에게 조력자살을 권한 의료진의 이야기들은 목적을 잃은 법안의 현실을 말해준다.

자살 방조 및 조장이 아니라 좋은 돌봄 받으며 잘 살도록 배려

조력자살법의 발의 배경에 대해서 임종기 환자를 돌보는 의사들의 판단은 달랐다. 평생 암 환자를 진료하며 임종 현장을 함께한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국민의 82%가 조력자살을 찬성한 설문 결과에 대해서 ‘좋은 임종을 맞이할 환경이 안 되어 자살 약을 먹겠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자살을 존엄한 죽음이라고 제도화한다면 고령 환자의 자살을 방조하거나 조장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져 ‘현대판 고려장’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연합도 말기 환자들은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조력자살을 택할 수 있고, 간병하는 가족도 병원비 부담으로 인해 환자를 조력자살로 유도할 위험성이 있다고 했다.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가 존엄한 죽음을 위해 가장 중점을 뒀야 할 일이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했을 때 ‘조력자살 합법화’라고 응답한 사람은 13.6%에 그쳤다. 그 대신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한 시스템 조성과 의료비 절감, 호스피스 서비스 확충이 우선이라고 답한 비율이 80.7%에 달했다. 존엄한 죽음을 위해 할 일은 조력자살법 제정으로 환자를 고통 중에 자살하게 하는 게 아니다. 좋은 돌봄을 받으면서 마지막까지 잘 살도록 배려해야 하는 것이다. 고통과 바깥만큼 나의 생명이 가볍지 않다는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다.

정부가 먼저 해야 할 일

정부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자들이 생애 말기에 존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확장해야 한다. 존엄한 돌봄은

“

말기 환자가 제거되지 않는 고통으로 죽고 싶을 때,
내 생명을 지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성도의 일이다.
하나님을 모르고 죽음 기다리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전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다.

”

말기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죽음만 연장하는 연명치료를 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한다. 호스피스를 통해 말기 환자가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도록, 죽을 때까지 잘 살도록 최선을 다해 돌보는 것으로 이어진다. 호스피스팀은 환자가 입원하면 24시간 이내 통증이 완화된 수 있도록 돌본다. 통증이 조절되면 환자가 가족과 화해하고, 감사의 마음을 나누며,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평화롭게 지내도록 도와준다. 이렇게 좋은 죽음을 준비할 시스템이 있기는 하지만 안타깝게도 국내 호스피스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 호스피스 의료 대상자는 연간 9만 명에 이르는데, 현재 호스피스 병상은 1,500개에 불과하다. 모든 병상을 쉼 없이 사용해도 전체 대상자 중에서 21% 정도만 이용할 수 있다. 호스피스 병상이 늘지 않는 이유로는 낮은 수가가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일례로 병원이 말기 환자에게 연명치료를 했을 때와 비교해 같은 기간 동안 호스피스 돌봄을 제공하면 수익이 현저히 줄어든다. 환자가 호스피스 치료를 받고 지불하는 비용은 연명치료의 1/4이 안 된다. 환자에게는 유익하지만, 병원 입장에서는 호스피스에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어렵다. 국회는 호스피스 시설과 잘 훈련된 인력확충을 준비하며 동시에 호스피스 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 여러 병원이 적자 걱정 없이 호스피스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둘째, 자살 풍조가 팽배한 생명 경시 시대에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잘못된 것임을 알려야 한다. 말기 환자가 조력자살하는 것이 죽음에 대한 존엄한 자기결정권이라고 인정하면, 자살 역시 자기결정을 따른 존엄한 것이라는 모순에 빠진다. 어느 사회든지 자살을 금지하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이유는 자살이 살인이기 때문이다. 자살은 자신만의 파멸이 아닌 가족과 지인들에게까지 상처를 주고, 사회성을 파괴하는 악한 행위다. 기독교적으로는 스스로 생명을 끊는 행위는 내 안의 하나님 형상을 파괴하는 죄악이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해치는 교만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인간에게는 생명의 본성만 있

다. 죽음을 원하는 본능은 없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은 생명을 사모하는 마음이다. 육신의 생명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마음까지 주셨다(전 3:11). 죽음의 충동은 내 안의 본성이나 권리가 아니다. 외부로부터 온 것이다. 극심한 외로움, 자존감의 박탈, 조절이 안 되는 통증 같은 외부의 고통으로부터 온다. 외부의 고통을 제거하면 생명의 본성이 나타나게 되어있다. 그러나 죽음이 자기의 권리라는 왜곡된 사고가 생명의 본성을 속이면 호스피스 시설이 많아져도 조력자살을 멈출 수가 없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조력자살자의 91% 이상이 호스피스를 이용하다 조력자살을 택했다. 캐나다의 경우 80% 이상이 호스피스를 이용했다. 그 나머지 80%도 대부분 호스피스 이용이 가능한 사람들이었다. 아무리 좋은 돌봄을 제공해도 죽음의 자기결정권을 용인했기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연약한 생명이라도 그 존재만으로 사랑받을 권리가 있음을, 생명은 절대 포기할 수 없이 존귀한 것임을 정부가 나서서 교육해야 한다. 이 땅에 왜곡된 죽음의 문화가 자리 잡지 못하게 해야 한다.

안락사 논쟁은 ‘죽을 권리’와 ‘생명의 권리’의 세계관 전쟁이다. 고대에 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병약한 생명은 안락사시키는 것이 낫다던 철학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 기독교의 생명 존중 문화에 의해 한동안 수그러들었다. 17~18세기 계몽주의 시기 인간의 이성과 개인의 권리의식이 크게 발달하며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고 죽음도 개인의 권리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 계몽주의(Enlightenment)의 어원은 빛과 밝아짐에 있다. 이성의 빛이 진리를 밝힐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타락한 인간의 이성은 진리의 범위를 오히려 축소하고 왜곡된 틀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외면했다. 조력자살 및 안락사의 배경에는 이성을 우상으로 삼는 인본주의가 있다. 그 배후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게 하려는 사탄의 계략이 있다. 21세기 들어 전 세계적으로 죽음이 자신의 권리라는 안락사 합법화의 물결이 거세졌다. 성도들은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태에서 지으시고(시 139:13), 죽는 날까지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며, 인자함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다(렘 31:3). 말기 환자가 되어 제거되지 않는 고통으로 죽고 싶을 때, 내 생명을 지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성도의 일이다. 하나님을 모르고 죽음을 기다리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전하는 게 우리의 할 일이다. 성도의 기도는 돌봄의 마침표라고 했다. 죽음 앞에 절망하는 자를 위해 기도로 돌봐주며, 병상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바란다(계속).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세 가지 신앙생활 단계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싶은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저의 시간표를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청년이 자신의 바람과 시간표에 하나님이 함께하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자신을 맞추고 싶다는 질문자를 칭찬한다. 이 질문을 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자신을 맞출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성경은 하나님이 ‘전능자’, ‘전지자’ 이심을 말씀하고 있다. 때로 우리는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며 한 가지를 오해한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 있고, 우리는 그 선택을 함으로써 그분이 예비하신 뜻과 길을 걸어간다는 운명론적 신앙관에 빠지는 것이 그것이다. 운명론적인 신앙관을 가지게 되면 어떤 선택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행해야지만 그분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 ‘만약 그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적인 마음과 죄책

감 등을 가지게 된다. 이때 더 많은 사탄의 죄와 속임에 당할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 우선 성경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죄를 선택할 수 있을 정도의 자유의지를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하나만 주시고, 그 하나를 우리가 선택해야지만 된다는 생

성경에서 말씀하는 율법을 쉽게 설명하면 축구 경기와 비슷하다. 축구 경기를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규칙이 있다. 그 규칙 안에서 선수들이 자유롭게 축구를 즐기며 운동한다. 그 규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규칙이 있기에 자유의 선택이 있는 것이다. 성경의 율법은 우리가 삶의 선택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려주는 가이드라인과 같다. 이것은 선택의

련하는 이 단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된다. 매일 큐티하며, 이에 관한 책과 설교를 들어보자.

셋째,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선택하는 단계다. 그런 깊은 단계가 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의 시간표 안에서 걸어가고 있게 된다. 그 시간표 안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 주신다.

“너희가 무엇이든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요 16:23).

어느 단계에 있는지 하나님 안에서 묵상하고, 그것에 맞게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바란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하기를 기도한다. 선하시며,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실 것이다.



김성웅 목사
(대전드리머스청년부)

“하나님 안에서 묵상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라.”

각은 잘못됐으며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다.

청년들이 세 가지 신앙생활 단계를 구분 짓고, 이를 행하도록 조언하고 싶다. 첫째, 거룩함을 아는 단계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고 싶다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지 않을 것들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한다. 거룩함이 무엇인지 <레위기>를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는지를 읽고 묵상하기를 바란다.

한 종류가 아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려주는 가장 기초적 기준이다.

둘째, 순종의 단계다. 때로 사람마다 거룩함을 아는 단계보다 먼저 통과하는 단계가 될 때도 있다. 성경에서는 광야를 이 시기로 표현한다. 원하지 않는 환경이나 이끄심이 있을 때, 내 생각과 달라도 내려놓고, 그 시간을 선택하는 것이다. 매일 달라지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경험하며 훈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건강한 가족 경계(family boundary)

가족 간에 가족 경계(family boundary)가 바로 서 있어야 한다. 경계는 가족 간에 보이지 않는 영역을 구분하는 선이다. 성장한 자녀의 방에 노크 없이 들어가는 것은 가족 관계라도 경계선을 침범하는 행동이다. 자녀를 한 사람의 인격체로 인식하고 대우한다면 당연히 노크해야 한다. 경계선이 잘 세워진 사람은 심리적,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 물론 경계선의 의미에 독립성이 강조된 측면이 있지만, 유연성과 융통성도 포함된다. 필요하다면 자기 자신이 경계선의 문을 열 수도, 닫을 수도 있어야 한다. 누구나 아무 때나 오가는 허물어진 경계선을 가져서는 안 된다.

바람직한 가족 경계는 독립성과 자율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독립성을 충분히 보장받아야 하고, 자율성을 적극적으로 발휘해서 경계선의 문을 직접 열거나 닫을 수 있어야 한다. 가족 안에서 건강한 경계선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선 환경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가족 경계선이 불분명하면 관계나 역할에서 경직과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건강하지 않은 가족 경계로 과도하게 밀착되거나 분리된 가족 관계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의 연구에 의하면, 지나치게 밀착된 가족과 지나치게 분리된 가족의 경계선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난다. 첫 번째 특징은 개인의 차이와 독특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가족은 서로 같은 성향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서로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가족이지만 극히 외향적인 사람이

있고, 반대로 내향적인 사람도 있다. 어렸을 때는 성향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성장하면서 특징이 분명해지기도 한다. 어떤 외향적인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 부모는 자신의 성향에 맞춰 아이가 활동적인 영역에 참여하도록 독려했다. 하지만 아이는 부모의 기대와 다르게 활동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았다. 아이는 극히 내향적인 성격이었다. 당연히 환경적인 요인으로 개인의 성격이 형성되지만, 종종 예상외의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내향적인 아이에게 외향적인 부모가 과하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재촉한다면 자신의 경계선이 허물어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 자신의 결정이나 의견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면서 우울과 낙심, 분노를 느낄 수도 있다.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다.

둘째, 내부적인 것에만 몰두하고자 하고, 외부에 자신을 개방하는 것을 꺼리게 된다. 자신의 공간과 시간을 침해받고 싶지 않은 욕구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때로 외부와 접촉이 있는 경우 자신의 마음을 여는 데 불편함을 느낀다. 성장했던 경험에 비춰봤을 때 외부인이 거리낌 없이 자신의 공간에 침입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들기에 외부인과의 접촉이 그리 반갑지 않을 수 있다. 경계가 모호한 채 병리적으로 밀착된 성장배경을 가진 사람이 결혼하면 자신도 모르게 배우자와 가족과의 관계에서 내향성을 과하게 표현할 수도 있다.

셋째, 미약한 독립성과 부족한 자율성을 가

질 수 있다. 스스로 결정하고 독립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에서 자라지 못했기에 결정할 일이 생기면 큰 부담을 느끼게 된다. 어쩌면 자신에 관한 일이라도 선택권을 늘 타인에게 넘겨줄 수도 있다. 독립적으로 살기보다 누군가의 결정에 따라 살아가는 게 익숙하기 때문이다. 가족 간에 경계가 없고 병리적으로 밀착되어 있다면 적절한 경계를 만들어 가는 게 서로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

한편, 가족 간의 경계가 지나치게 분리되어 있거나 헐거워져 있다면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나타나게 된다. 첫째, 가족에 대한 상호 관심과 관여하려는 의지가 매우 낮다. 낮은 가족 응집력과 가족 결속력이 나타난다. 가족이지만 서로의 삶과 생활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떨어진다. 개인을 존중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무관심한 가족으로 보일 수도 있다. 가족 경계가 매우 헐거운 성장배경을 가진 배우자라면 결혼 이후 때로는 매우 정 없는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다. 사실 가족에 관한 관심과 사랑이 없다가보다 자라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독특한 성향이다. 누군가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와 상호교류하면서 살아가는 게 익숙하지 않고, 혼자 살아가는 게 익숙하다고 느끼기에 살가운 처신을 하기가 어렵다. 감정적이고, 정이 담긴 표현을 나타내기도 쉽지 않다. 배우자의 성장배경이 이와 같다면 과하게 변화를 요구하기보다 인내하며 수용하는 편이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

둘째, 서로의 정서적 욕구를 즉각적으로 과

악하기 어렵고 반응하는 수준이 낮다. 가족 경계가 차갑고 헐거우며, 거리가 멀기에 그 사람이 느끼는 정서적 반응을 파악하고 적절히 반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공감 능력이 바닥이며 매정하다고 느껴질 수 있다.

셋째, 가족의 다양한 욕구가 거부되는 분위기가 있다. 따라서 서로에 대한 원망이 남아 있을 수 있다. 경계가 헐겁고 멀기에 상대의 상태를 자세히 파악할 수 없다. 어떤 면에서 서로에게 관심이 별로 없다. 자신을 비롯한 가족의 욕구가 거절되거나 묵인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험들이 한 사람의 자존감, 소속감의 결여로 나타날 수 있다. 물론 가족의 경계가 헐거우면 자율성과 가족 간의 차이에 대해 다소 관대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다.

가족의 경계는 적당하고 적절해야 한다. 성장배경에서 경직된 가족의 경계를 가졌거나 너무 헐거운 경계를 가졌었다면 현재 가족 경계가 어떻게 자신과 배우자, 가족의 삶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과하게 밀착되거나 헐거운 가족 경계를 넘어 적당하고 적절한 가족구성원 간의 경계를 갖는 게 필요하다.



황규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 저자)

맛있는 말씀 해설

“사람들이 이 여인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마 26:13)

예수님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인이 와서 값진 향유를 그분의 머리에 부었다. 이 여인이 너무나 값비싼 향유를 낭비하는 것을 본 제자들이 분개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이 한 일은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함이며,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인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마 26:13)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우리는 그 여인의 이름을 모른다. 성경이 그 여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은 그녀의 이름보다 그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그녀의 이름 대신 ‘자신의 것을 모두 드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여인’이라고 기억한다. 이 여인을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그녀의 이름보다 더 정체성을 잘 나타내주는 것이 될 것이다.

성경이 여인의 이름을 감춘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을지도 모른다. 만약 그녀의 이름이 드러났다면 모든 수치스러운 과거 일도 함께 기

억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윗과 같은 영광스러운 이름도, 그 이름과 함께 그의 간음과 살인죄에 대한 기억이 소환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여인의 이름을 감춘 것은 그녀의 이름으로 이룬 모든 삶을 뛰어넘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은 것이 될 수 있다. 마치 그리스도인이 과거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하고 주님의 신부로 새롭게 탄생한 것처럼, 감춰진 이름은 이 여인에게 새로운 신분으로 영원히 기억될 수 있도록 한 게 아닐까?

성경에는 이 여인처럼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많은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한다. 물론 이들 모두가 이 여인처럼 후대에 기억되는 사람으로 남겨지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배경처럼 등장하다 사라진 것 같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준다. 우리 대부분 널리 알려진 이름 없는 평범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름 없는 평범한 삶이 있어도 되고 없어져도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서로 연결된 반드시 필요한 몸의 한 지체와 같은 삶이라

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제자들을 통해 우리를 제자의 자리로 초청한다. 또한 그들의 삶이 그때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지금 우리와 연결되어 현재 삶에 적용하게 하신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름도 성경은 밝히지 않고 있다. 그들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지만, 알아보지 못하다가 나중에는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이런 일이 특정 시간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로도 계속 일어날 것이기 때문 아닐까?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 가지 이유로 실망하고 자신의 자리를 떠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만나 주고 계신다.

성경은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보다 중요한 하나

님의 역사가 있음을 알게 하신다. 감춰진 이름으로 인해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 성경에 기록된 역사가 지금 이곳에서도 일어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여인’처럼 새로운 정체성을 입고 영원히 기억되기도 한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잘못된 방향인지도 알게 하신다. 감춰진 이름들은 우리가 사람에게 불리는 이름에 갇혀 있지 않고, 그 이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평범한 우리 모두 추구할 수 있다고 격려하고 있다. 지금도 이 땅에서 이뤄지는 하나님 나라에서 낭비처럼 보이는 헌신을 하나님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여인’을 기억하시는 것처럼, 기억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은일 장로
(성동광진공동체,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생명의 삶〉 QT 프리뷰(Preview)

형통과 패망을 가르는 태도

7월 29일~8월 4일
〈열왕기하〉 17:13~19:13



을 내쫓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진노하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경고와 오래 참으심이 어땠는지 묵상하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북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에게 악한 길을 떠나 율법대로 행하라고 명령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 이에 진노하신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앗수르에 의해 망하게 하신다. 앗수르 왕은 북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가고, 또 이방 민족들을 사마리아를 비롯해 여러 성읍으로 이주시킨다. 북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이방인들은 자기 민족의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경외하고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 원수의 손에서 건지실 것을 거듭 약속하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언약

묵상포인트 1: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다. 하나님을 많은 신 중 하나로 여겨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는 것은 십계명 1~2계명을 범하는 죄다.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자기 백성

을 지키지 않고 조상들처럼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다.

묵상포인트 2: 하나님을 의지하면 형통하지만, 하나님을 저버리면 징계를 받는다. 히스기야는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을 의지한 왕으로 평가받는다. 히스기야의 신앙과 형통한 삶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묵상하자.

▶유다 왕 히스기야는 다윗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다. 그는 유다 왕들이 해결하지 못한 산당을 제거하고, 백성이 우상시하던 놋 뱀(모세 시대에 만든 상)까지 철저히 부순다. 그는 유다 왕 중에서 그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명을 지킨 자가 없었다고 평가받는다.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의지한 덕분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시며 형통하게 하셨다. 히스기야 재위 때 유다는 평안을 누리지만, 하나님을 저버린 북이스라엘은 앗수르의 침공으로 패망한다.

묵상포인트 3: 신실한 신앙인에게도 위기가 찾아온다. 하지만 성도에게 위기는 신앙과 인격이 성장하는 기회다. 랍사게를 통해 전해진 앗수르 왕의 말은 하나님 백성의 믿음을 약화하는 사탄의 말과 같다. 믿음이 통째로 흔들리는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묵상하자.

▶히스기야 재위 14년 앗수르가 침략해 유다 성읍들을 점령한다. 히스기야는 위기를 모

면하기 위해 성전과 왕궁의 은금을 다 내준다. 그럼에도 앗수르 왕은 군대를 예루살렘으로 보낸다. 앗수르 왕이 보낸 랍사게는 히스기야의 약한 군사력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비웃고 유다를 멸하겠다고 선포한다. 히스기야는 옷을 찢고 굵은베를 두르고 신하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 기도를 요청한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한영을 앗수르 왕에게 두어 그가 소문을 듣고 본국으로 돌아가 죽게 하실 것을 예언한다.

-적용을 위한 가이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뜻대로 살도록 많은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어떤지 돌아보자. 순종하면 ‘삶’(생명)을 얻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다짐하자. ▶하나님을 많은 신 중 하나로 여겨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는 것은 죄다. 내가 경계할 종교 혼합주의가 무엇인지 살피고, 하나님만 섬겨야 함을 기억하자. ▶하나님은 업적이나 성취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평가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지 생각해 보고,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기 위해 내어 버릴 게 무엇인지 살피자. ▶히스기야는 믿음을 흔들리는 선동의 말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나아갔다. 선동과 비난에 내가 직접 맞서는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자. ▶나를 흔들리는 사탄의 말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신뢰하자. /〈생명의 삶〉 편집부

온누리가 함께 하는 기도

가정을 위해서!

저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중학생 딸과 초등학생 아들을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요즘 사춘기인 딸과의 의견이 달라서 다투는 일이 많습니다. 딸은 성악을 전공하겠다고 예술포럼에 진학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특별한 꿈이 있어서 예술포럼에 가려는 것도 아니고, 그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저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생각해서 했던 이야기가 아이와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것 같아 속상합니다.

아이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는 자녀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자녀를 내 뜻대로 이끌어 가려고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부모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균열이 생겨버린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도록, 가정 안에 있는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최근 골다공증 진단을 받아 몸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남편도 직장일이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빛이 생겼고, 그로 인해 많이 힘들어합니다. 우리 부부의 상황이 좋지 않은데 아이들과 문제까지 생겨서 마음이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돌보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가정 안에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남편의 직장 문제와 저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 익명의 성도

*기도제목 보내는 곳: daa2@onnuri.org



지난 7월 21일 남양주온누리교회에서 드린 입당감사예배.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지난 7월 21일 남양주온누리교회 입당감사예배
이재훈 위임목사 등 리더십 및 성도 758명 참석

남양주온누리교회 입당감사예배를 지난 7월 21일(일) 새 예배처소 본당에서 드렸다. 이날 입당감사예배에는 온누리교회 목회자 및 리더십, 성도 등 758여 명이 참석했다.

남양주온누리교회 입당감사예배는 당회서기 이안용 장로 대표기도, 온누리장로합창단 특송, 이재훈 위임목사 메시지, 유형 장로 건축경과 보고, 감사패 증정, 이기복 목사, 이진택 장로 감사 인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이재훈 위임목사는 ‘새 포도

주는 새 부대에’를 주제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목사는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 가득한 교회, 성령님께 쓰임 받는 교회, 이웃을 축복하는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축복했다.

이기복 목사(남양주온누리교회 담당)는 “새 예배처소를 청소하면서 행복해하시는 성도들을 보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면서 “이곳이 온전히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소망했다.

송기선 장로(서초B공동체)는 “하

나님이 남양주온누리교회를 인도하시고, 세워주셔서 감사하다”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은희 성도(남양주온누리교회)는 “남양주온누리교회가 새 포도주가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앞으로도 하나님 뜻을 분별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고백했다.

남양주온누리교회는 2004년 11월 7일 국내 다섯 번째 캠퍼스로 창립했다. 새 예배처소는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82번안길 120-14(다산동 6177번지)번지에 있다.

/ 김다예 기자 daa2@onnuri.org

NGO 더멋진세상 사무실 이전 감사예배

임직원 및 이사회, 목회자 등 50여 명 참석

NGO 더멋진세상 사무실 이전 감사예배를 지난 7월 23일(화) 새 보금자리에서 드렸다.

NGO 더멋진세상 사무실 이전 감사예배는 박대호 장로 대표기도, 이재훈 위임목사 설교, 박종길 목사 축도, 김광동 대표 감사 인사 등의 순서가 이어졌다. NGO 더멋진세상 임직원 및 이사회, 온누리교회 목회자 및 리더십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재훈 위임목사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느 2:1~8)을 주제로 설교했다. 이목사는 “NGO 더멋진세상이 느헤미야처럼 이웃의 슬픔을 함께 느끼며 위로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전하고 드러내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김광동 대표(NGO 더멋진세상)는 “NGO 더멋진세상이 새 보금자리를 마련한 것은 성도님들과 후원자님들의 기도와 관심, 후원 덕분에”이라며 “앞으로 NGO 더멋진세상이 지경을 넓혀 더 큰 비전으로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

NGO 더멋진세상은 지난 2010년 가난과 질병, 자연재해로 고통당하는 전 세계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돕기 위해 창립했다. 전 세계 곳곳에서 더멋진마을 조성, 다음세대 희망심기, 취약계층 생명 살리기, 긴급 구호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새로 이전한 사무실 주소는 서울시 서초구 동작대로 214, 정금빌딩 6층이다.

/ 홍하영 기자

바캉스 태아 생명 구조대!

아름다운피켓, ‘원치 않는 임신 예방 캠페인’

태아생명존중 비영리단체 ‘아름다운 피켓’이 ‘원치 않는 임신 예방 캠페인’을 7월 27일(토) 부산 해운대(부산 해운대 구남로 문화광장 1번 버스킹존)에서 했다. 위기미혼모 청년자립지원단체 ‘위키코리아’, 부산위기임신지원센터 ‘아소르’가 공동 주관하고, 주사랑공동체와 메

디힐이 후원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바캉스 태아 생명 구조대’ 이름을 내걸고 생명 존중 메시지가 적힌 피켓 퍼레이드와 인식개선 설문 조사, 태아 응원 메시지, 생명 퀴즈 게임(물풍선 던지기, 캡슐 뽑기, 룰렛 돌리기 등) 등을 했다. 문의: 02-703-4620

CGN ‘메시지 트립’ 참가자 모집

그리스, 튀르키예 등 바울 전도 여정 따라가

CGN 성지순례여행 ‘메시지 트립’ 참가자를 모집한다. 바울 및 성지 전문가와 함께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을 따라 걷는 성지순례다. CGN이 기획하고, 천지투어에서 진행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천지투어 홈페이지(www.bibletour.c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팀당 30명 선착순 모집한다.

메시지 트립은 그리스와 튀르키예를 돌아보는 코스다. 총 3차례 진행할 예정이다. 1차 여행은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이영철 목사(국제사도바울센터원장)가 성지를 소개

하고, 강의한다. 참가비는 353만 원이다. 2차 여행은 10월 14일부터 24일까지 김동문 선교사(중근동 눈으로 읽는 성경) 저자)가 인도한다. 3차 여행은 11월 18일부터 28일까지 이익상 목사(이스라엘 따라 걷기) 저자)가 인도한다. 2~3차 메시지 트립 참가비는 373만 원이다. 가이드 및 기사 팀, 튀르키예 파묵칼레 카트투어,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 관람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문의: 02-703-7100

(천지투어, 평일만 운영)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방법!

청춘클래스 9기 참가자 모집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우는 방법을 알려주는 ‘청춘클래스 9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9기 청춘클래스는 8월 31일(토)과 9월 7일(토) 오후 1시 여의도 정곡빌딩 4층에서 진행된다.

청춘클래스 9기에서는 개그맨 조래훈이 사회를 보고, 최성민 목사(대학원본부장)가 ‘크리스천 연애 노하우’를 주제로 강의한다. 김복유 전

도사 간증 및 콘서트도 열린다.

청춘클래스 9기 참가를 희망하는 청년들은 8월 4일(일)까지 네이버 카페 ‘청춘클래스’ 또는 QR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60명(남녀 각각 3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회비는 7만 원(양일 식사 포함).

문의: 010-5628-8872



/ 홍하영 기자

본부 133기 두란노어머니학교

본부 133기 두란노어머니학교가 개강한다. 오는 9월 4일부터 10월 2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서빙고온누리교회 시온홀에서 열린다. 참가신청은 9월 4일까지 두란노어머니학교 홈페이지나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모집인원은 60명이다. 선착순 마감한다. 회비는 15만 원.

문의: 02-2182-9114

7월 세례자

■서빙고

강지영 020611
강희도 600117
김효진 880224
민주빈 040522
송은빈 020914
이경진 800728
정혜정 600611
조찬우 020325
홍낙원 590723

입교

김예원 051102
유아
김민교 220907
김재현 오하연
김민소 220907
김재현 오하연
김지유 180314
김동휘 김민영
김지율 240403
김동휘 김민영
박하은 240202
박재성 라세정
성다는 221111
성윤창 음소라
최도영 201217

최현석 유송지

■양재

김수안 950129
박지선 780824
송지혁 871015
양인지 880519
윤영조 850421
이계원 650520
정진옥 510315
유아
김려빈 230820
김동욱 송은혜
남 결 230724
남규민 한순천
민채윤 230524
민수홍 이지아
신유안 230719
신지수 윤혜임
윤은경 230721
윤랑구 방은혜
이은유 230419
이영호 조주희
임로아 230821
임 면 윤세영

부채탈출119, 신청자 상시 모집

‘가계재정상담신청서’ 작성 제출

사회선교본부 경제정의팀에서 ‘2024 부채탈출119’ 신청자를 상시 모집한다. 부채탈출119는 재정문제와 가계부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와 이웃들을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부채상담사역이다.

재정 상담을 원하는 성도들은 ‘가계재정상담신청서’를 작성해서 이메일(james332023@gmail.com)로 제출하거나 구글 링크(QR참고)에서

‘가계재정상담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가계재정상담신청서는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가계재정상담신청서에는 신청자 또는 추천자의 개인 정보, 상담 필요 분야(부채 및 신용관리, 결혼자금 준비, 목돈 마련, 저축, 주거자금 마련, 돈에 대한 심리상태 등), 부채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면 된다.



264기 결혼예비학교 참가자 모집

8월 6일 오전 10시부터 신청, 선착순 마감

264기 결혼예비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오는 8월 6일(화) 오전 10시부터 두란노서원 홈페이지(duranno.com)에서 신청하면 된다. 264기 결혼예비학교 프로그램은 8월 30일부터 9월 13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주차

별 강의가 2개씩 업로드된다. 강의 안도 제공한다. 회비는 15만 원.

264기 결혼예비학교에서는 ‘결혼의 성경적 가르침’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지고, 나눔과 성경 서약식 등의 프로그램을 한다.

문의: 02-2078-3263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우측 QR코드를 찍으면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전도콜센터 02-3215-3377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 ‘Why Mission?’ 수료 간증



/ 채민정 자매(S브릿지공동체)

선교적 영성이 눈 뜨는 곳

나는 선교에 뚜렷한 비전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내 몫을 다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주어진 것에 집중하면서 살았다. 지난해까지 섬기던 사역을 올해 다 내려놓고, 일터에 집중하면서도 ‘뭐라도 듣는 게 개인 영성을 위해 좋지 않을까’ 하는 이기적인 욕심에 아이스쿨 강좌를 찾아봤다. 그중에 ‘Why Mission?’ 과정이 눈에 들어왔다. 토요일까지 근무하는 내 일의 특성상 유일하게 참석할 수 있는 과정이었기 때문이다.

첫 주 강의를 기다리는 동안 ‘굳이 왜 Why Mission?’이라는 의문이 들었다. 듣고 싶었던 강의들이 있었는데 왜 Why Mission?만 시간이 맞았을까? 그 의문이 떠나지 않았다. 강의가 시작되기 무섭게 하나님이 정말 명확하게 말씀하셨다. “이제 그만 너 중심, 너에게로만 향하는 시선이 아니라 나의 시선이 있는 곳을 같이 바라봐주지 않겠니?”라며 먼저 손 내밀어주셨다. 하나님은 성경이 선교 위에 쓰였다며 선교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선교를 친절하게 설명하셨다. 목사님을 통해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선교에 대해 말씀하셨고, 성경을 다른 시각으로 보기를 도전하셨다. 양화진외국인 선교사묘원에서 한국 선교 역사를 듣고 선교

사님들의 묘역을 눈으로 직접 보며 설명을 듣게 하셨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의 메시지에 반응한 선교사님들의 사랑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선교사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것을 감사하고, 편하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세계 선교 역사와 안산M센터에서 타문화를 이해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이주민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주민들은 단순히 우리나라에 돈을 벌러 온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나라를 위해 보내신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몇 년 전 이주민 집회 ‘Harvest’에서 각 나라 언어로 함께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감격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Why Mission?’은 선교적 영성이 눈 뜨는 곳이다. 선교적 영성이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을 시작하셨음을 믿는다. 내게 허락하신 일터와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향하는 곳이 어디인지 분별하고, 그곳에 내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기도한다.

■ 부채탈출119 간증



/ 김희망 형제(가명)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나의 아버지는 은행 임원이었다. 그 덕분에 경제적 어려움 없이 유복하게 살았다. 대학 졸업 후에는 의학전문대학원 진학을 마음먹고 공부에만 매진했다. 그러나 아버지가 퇴직 후에 하던 사업이 실패하면서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생활비와 수험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대기 위해 대출과 신용카드에 의지했다. 1년 동안 부단히 공부했지만, 경제적 궁핍이 수험생활 내내 나를 괴롭혔고 결국 시험에 낙방하고 말았다. 1년 더 공부하고 싶었지만 이미 많은 채무로 정신을 차릴 수 없었던 나는 공부를 포기하고 직장을 알아봐야 했다.

직장만 구하면 빚을 갚을 거라 기대하며 열심히 구직한 끝에 직장 들어갔다. 그러나 180만 원이 채 안 되는 급여로 대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생활비까지 댄다는 것이 불가능했다. 점점 심해지는 카드회사와 금융기관의 독촉과 만기가 도래한 대출금은 또 다른 대출로 돌려막기에 급급한 생활을 이어가며 하루하루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 같았다.

온누리교회 부채탈출 119 광고는 진작 봤지만, 싼뜻 도움을 청할 용기를 내지 못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면서 빚이 더 늘어 더는 버티기 어려웠다. 계속되는 빚 독촉 전화와 문

자메시지에 매일 지옥을 경험하는 것 같았다. 어렵사리 경제정의팀의 문을 두드렸다. 상담사가 나의 모든 상황을 경청하며 내게 가장 적합한 부채탈출 계획을 세워주었다. 당시는 실직 중이라 당장 생활비도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는데 행복기금을 통해 급한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지원 방식을 보면서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정말 놀라고 감사했다.

부채탈출 상담을 마치고 안도감과 더불어 몇 년 동안 참아왔던 마음의 어려움과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지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상담 이후에도 연일 빚 독촉 가운데 있었지만, 행복기금 지원 덕분에 침착하게 구직활동을 할 수 있었다. 현재는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며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다. 상담사가 알려 준 방식으로 일부 빚을 탕감받을 수 있었고, 남은 빚도 성실하게 갚고 있다. 빚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가면서 매사에 희망을 느꼈고, 회사 일도 더 열심히 하게 되는 변화를 체험했다. 30대 중반이 되도록 자포자기 심정으로 향방 없이 시간만 허송했는데 이제는 미래를 위한 계획도 세울 수 있어서 힘이 솟는다.

■ 큐티스쿨 간증



/ 조은미 성도(한강공동체)

큐티가 참 소중해졌다!

“하나님과 단단히 연합되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막상 이렇게 말하고 기도하지만, 실천보다 머리에 머무는 생각일 때가 많았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호는 받고 싶지만, 나의 시간을 드리고 순종하며 행하는 어려운 일은 적당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나의 말과 기도가 행동으로 잘 이어지지 않는다. 혼자서는 믿음을 키우기도, 지켜 가기도 어려워서 도움이 필요했다. 단단히 결심하고 부지런히 운동하겠다고 마음먹지만, 며칠 만에 맛있는 음식과 게으름에 무너지곤 하는 나를 다그치기 위해 비싼 헬스장에 등록했다. 주 4회 트레이너와 함께 수영과 PT를 했다. 그 덕분에 지난 일 년 365일 중에서 300일을 운동했다. 수술하고 한쪽다리 올리는 것조차 부들부들 떨었는데, 이제는 빨리 걷기 시간이 늘고, 제법 난이도 높은 동작을 소화하기도 한다.

큐티스쿨은 내게 비싼 헬스장이고, 트레이너다. 내 나약함 때문에, 바쁜 일상을 핑계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뒤로 미루거나 소홀히 하지 않도록 도움을 줬다. 큐티의 의미, 큐티를

하는 이유, 단계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 등 큐티에 체계를 더해 주었다. ‘기록하기’는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큐티를 매일 하는 루틴 만들기의 가장 큰 난관이었다. 하지만 더 깊이 묵상하는 기회가 되었다.

무엇보다 가장 좋았던 것은 큐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는 점이다. 큐티는 원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 묻는 시간임을 알게 되었다. 큐티가 참 소중해졌다. 내가 큐티스쿨에 등록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불러 주셨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큐티를 건너뛰는 날이 많아서 한쪽 다리 올리는 것도 부들부들 떠는 수준이지만, 큐티가 매일 하루의 시작이 되는 날이 오도록 노력할 것이다.

양성민 목사님이 큐티스쿨 강의에서 던진 질문에 답하며 글을 마치고 싶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세요?”

도움이 필요할 때만 그분을 찾는 게 아니라 늘 그분과 함께하며 그분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진정한 친구가 되고 싶다.

■ 시니어 아카데미 수료 간증



/ 김찬중 집사(이촌공동체)

“시니어 아카데미로 초대합니다”

시니어 아카데미에 처음 신청했을 때 ‘나도 이제 나이(올해 66세)가 든 거야?’ 등 다소 내키지 않는 마음이 있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시니어로서 어떻게 신앙을 유지하는지, 어떻게 하면 더 신실한 믿음 생활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보다 큰 궁금증으로 시니어 아카데미에 신청하게 되었다.

시니어 아카데미에서는 인문학, 음악과 미술 등 요즘 나의 생활과 다소 멀어져 있던 교양 강좌를 성경과 연결해줬다.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 이심을 다시금 일깨워 줬다. 건강 강좌를 통해서 시니어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영육이 강건하도록 도와줬다. 그중에서 우리를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게 한 ‘산정호수 둘레길 소풍’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그 소풍이 시니어들을 주니어로 부활하게 했다. 만물의 창조주 위대한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눴는데 시니어 아카데미에서만 할 수 있었던 귀한 경험이었다.

시니어 아카데미에서 크게 깨달은 게 또 있다. 그동안 마음으로부터 소중하게 간직했던 시니어들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시니

어 아카데미라는 장(場)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게 하셨다. 후손들에게 우리가 신앙의 모범이 되게 하셨다. 나이는 들어가지만 믿음은 절대 늙거나 메마르지 않고, 더욱 성숙하고 그 깊이를 더하는 것임을 알게 하셨다. 기억은 단순화되지만, 그 단순함이 오로지 하나님께 향하는 통로가 되게 하셨다. 나의 과거와 현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미래의 신앙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하셨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시니어 아카데미에서 하나님이 맺어 주신 소중한 인연이 계속되기를 바란다. 옆에서 힘이 되고, 신앙의 모범이 되어 주신 믿음의 여러 선배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다음 학기에는 여러 이유로 수동적 믿음생활을 하고 계시는 시니어들이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오기를 바란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료와 함께 믿음을 확인하며, 같이 성장하는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소망한다. 모두를 시니어 아카데미에 초대한다. 하나님 품 안에서 온누리교회 모든 시니어가 건강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기도한다.

장로칼럼

생명을 건 믿음



이화영 장로
(분당A공동체)

오랜만에 청계산에 다녀왔다. 산을 오르다가 쉼터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챙겨온 간식을 텃새들과 나누어 먹었다. 쉼터의 새들은 등산객들과 친화적이어서 그런지 쉽게 접근했다. 나를 찾아온 텃새들도 간식을 꺼내 들자 여지없이 날아들었다. 새들은 한 편으로는 경계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 점점 지경을 넓히더니 마침내 테이블 위 손에 닿을 거리까지 와서 잔치에 참여했다. 처음에는 땅콩 부스러기를 조심스레 낚아채 가더니 한 녀석은 내려앉아 차분히 먹기 시작했다. 경계의 끈이 느슨해진 것 같아 장난기가 생겼다. 먹이를 손바닥에 올려두었더니 머뭇머뭇하던 그 녀석이 손가락 끝에 살짝 앉아보고는 이내 날아가기를 몇 번이고 반복했다. 그러다 마침내 먹이를 물고 갔다.

몇 번의 시도 끝에 담력을 얻은 그 녀석이 이제는 손바닥에 앉아 차분히 먹는 여유를 부렸다. 여러 차례 먹이를 물어 나르기까지 했다. 다른 새들은 주위만 맴돌며 부러워할 뿐 그 믿음 안으로 속 들어오지 못했다. 어찌 보면 다가오지 않는 녀석들이 똑똑한 지도 모른다. 내가 손바닥을 오므리기만 하면 생명이 날아갈 수도 있으니 말이다. 손바닥에 앉아 먹이를 먹고, 먹이를 물어 나르던 녀석에게 ‘저 인간이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생명을 건 믿음이 어디서 생겨났을까?

회사 다닐 때 잠시 내려가 있던 울산공장에 직원들끼리 ‘기로탄’이라고 부르는 대문짝만한 칼날이 위에서 떨어지면서 두꺼운 철판을 시루떡처럼 절단하는 ‘사랑기’라는 기계가 있다. 그 기계에서 가끔 손가락 절단 사고가

발생한다. 어느 날, 손이 놓여있으면 내려오는 칼날이 센서 작동으로 멈춘다는 절대 안전한 사랑기를 가져와 시연한다고 관계자들이 다 모였다. 젊고 잘생긴 직원이 기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스위치를 눌렀다. 그 순간 모두 “악!”하고 소리를 질렀다. 두 눈을 질끈 감았다가 천천히 실눈을 뜨는 사람도 있었다. 칼날이 부르르 떨며 멈추었고, 나는 순간 그 직원의 뒤통수를 같았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손을 집어넣는 놈이 어디 있냐? 막대기나 다른 것을 넣어도 되었을 텐데!”

그 직원이 얼얼한 뒤통수를 매만지며 내게 다시 질문했다.

“그러면 누가 삽니까?”

청계산 텃새는 몇 번의 접촉 끝에 이 인간이 결코 손을 오므리거나 변치 않을 거라는 생명을 건 믿음 안으로 들어왔다. 그 회사 직원은 센서가 절대 오작동하지 않는 100% 신뢰하는 제품이라는 절대적인 믿음의 결과로 무모해 보이는 행동을 한 것이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변치 않으시며, 식언치 않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다. 이 관계에 기초한 믿음이다.

우리는 죽어야 사는 자들이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이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온전히 역사하시도록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며 생명을 거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다. 그때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역사하신다. 생명을 거는 믿음으로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축원한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마 11:12).

권사칼럼

전도는 나의 기쁨과 희망!



박인숙 권사
(신원산공동체)

올해 9월 열릴 로잔대회 주제 ‘교회여,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와 일맥상통하게 올해 온누리교회 표어가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성령님이 권능을 주셔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나는 어느 때보다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한다.

나는 누구를 만나든 전도하기 위해 항상 가방에 비스킷과 전도지, 천 원짜리 지폐를 넣고 다닌다. 올해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를 오가며 택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내릴 때 팁 천원을 드렸더니 기사님들이 무척 좋아하셨다. 한 번은 기사님이 느닷없이 “천국 가기가 참 어렵지요? 이렇게 추운 날 어르신들이 새벽에 나가시다니요?”라고 했다. “우리는 천국 가려고 교회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고 싶어서 가는데요!”라고 했더니 갑자기 “천국에 가는 길 험하여도 ♪”라며 찬송을 불렀다. 그 기사님은 과거에 교회를 다녔는데, 천국 가는 게 힘들어서 그만뒀다고 했다. “천국은 내 힘으로는 못가지만 찬송하신 대로 생명 길 되기에 은혜로 갑니다”라면서 기사님께 복음을 전했다. 그분은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는 것 같다”면서 꼭 교회에 다시 가겠다고, 이 팀은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반겼다고 하셨다.

내가 사는 아파트 앞 작은 축구장에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여든다. 그 옆을 지나가는데 “야후, 목말라 물 좀 먹었으면 좋겠다”고 한 아이가 혼잣말했다. 내 귀에는 그 소리가 “내 영혼이 목말라요”라고 하는 것 같았다. 나도 모르게 “물 갖다 줄까?” 했더니 그 아이가 “정말요?”라며 눈빛을 반짝였다. 나는 얼른 집에

서 생수와 참외를 갖고 나왔다. 그 아이들이 감사하다면서 모여들었다. 나는 전도지로 복음을 전했다. 아이들이 스펀지처럼 복음을 받아들였다. 미래의 주역인 이들의 이름을 적고, 축복기도까지 했더니 무척 좋아했다.

요즘은 비가 시도 때도 없이 내린다. 며칠 전 비 오는 날에도 누군가 나를 기다릴 것을 믿고 옷을 소녀처럼 차려입었다. 마침 여자아이 5명이 계단에 참새 때 마냥 앉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나는 그 아이들에게 다가가 너무 예쁘다고 감탄하며 칭찬부터 했다. 할머니도 귀엽다고 아이들이 내게 반응까지 해주었다. 나는 얼른 준비한 비스킷을 꺼내 나눠주며 5분만 시간을 내달라고 했다. 그 아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아이들 무리에 한 번도 교회에 가본 적 없다는 아이가 3명이나 있었다. 우리 때와는 확실히 달라져서 미전도종족이 가까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아파트 놀이터에서 자녀를 지켜보는 외국인 엄마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인도에서 온 지 3년 되었는데 한 기업 관리자로 일해서 한국어를 모른다고 했다. 나는 짧은 영어 실력으로 손짓 몸짓까지 하면서 대화했다. 영어 전도지를 꺼내 읽어 달라고 했더니 그녀가 읽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다. 그녀가 자신도 신을 알고 싶다고 했다. 나는 말이 잘 통하지 않아서 답답했지만, 온누리교회 영어예배를 소개했다. 간절함과 진심이 통하는 것 같았다.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듣고 그 사랑 알도록 ♪”

전도할 때마다 찬송이 저절로 흘러나온다. 금광을 발견한 사람은 아무리 감춰도 얼굴에 나타나듯 전도는 기쁨과 희망을 감출 수 없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지나고 성도들이 곳곳에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다닌다. 기도의 열기가 뜨겁다. 열방의 제사장인 우리의 정체성을 굳게 지킨다면, 잠든 영혼을 깨우며 죽은 자들을 살리는 기적의 주님을 날마다 뵈는 것이다.

신앙에세이



허원희 목사
(과천의왕공동체)

얼마 전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영화 한 편을 봤다. 내가 본 영화 ‘퍼펙트 데이즈’는 완벽한 루틴을 살아가는 한 중년 남성 이야기다. 장소는 도쿄의 중심부다. 그는 매일 아침 도쿄의 명물 스카이트리를 보면서 일과를 시작한다. 그의 직업은 청소부다. 도심의 화장실을 다니며 구석구석 성실하게 청소한다. 영화 전체적으로 대사가 거의 없다. 그의 행동도 계속 반복된다. 새벽에 소리비질 소리에 잠에서 깨 이부자리를 개고, 세면과 수염 정리, 화초에 물을 주고, 집 앞 자판기에서 캔 커피 하나 뽑아 먹으며 출근한다. 출근할 때 듣는 레트로 카세트

테이프 음악이 영화 분위기를 살려낸다.

이 영화를 보면서 마치 도심 속 수도자의 삶을 보는 듯했다. 그의 삶은 만족과 충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청소가 끝나고 혼자 편의점 빵과 우유를 먹으며 쳐다보는 나뭇잎 사이의 하늘은 언제나 경이롭고 신선했다. 그 장면을 놓치기가 싫어서 카메라로 찍는데 의외로 구식 흑백 필름 카메라였다. 그는 찍은 사진들을 사진관에서 늘 현상했다. 도심 속 한가운데 살면서 하늘과 나무를 벗 삼아 공원의 새들과 행인들에게 눈빛으로 인사하며 말없이 도심의 찌꺼기들을 깨끗이 씻어내는 그의 삶은 성자가 된 청소부였다.

영화를 보면서 도시에 사는 성도들이 추구할 수 있는 수도 생활이 그려졌다. 이름하여 ‘도시 수도 생활’이다. 산속 깊은 수도원이 아닌 일상을 살면서 수도 생활의 핵심을 지키며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삶이 규칙적이어야 한다. 매일 정시에 일어나고, 정시에 밥을 먹고, 정시에 잠이 들고, 일과 중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영화에서 주인공이 보여준 대로 삶을 충만하게 보내려면 반복적 일상의 루틴을 지켜야 한다.

주인공과 함께 일하던 청소부가 일을 그만두자 그의 일이 많아지며 밤늦게까지 청소하게 되었다. 당연히 그의 하루가 망가졌다. 돈은 더 버는지 몰라도 그의 루틴이 깨졌다. 그는 곧바로 본사에 도움을 청하고 다시 루틴을 회복했다. 현대사회의 비극은 사람들이 돈을 더 벌려고 자신의 루틴을 쉽게 깨버리는 데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 돈보다 시간이, 시간보다 관계가 중요한 것이 경건 생활의 핵심이다. 또 한 가지 주인공은 루틴에만 만족하지 않고 루틴을 리츄얼로 바꾸었다. 리츄얼이란 규칙적으로 행하는 일상에 의미를 부여하고, 예식화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주인공이 아침마다 대문을

열고 스카이트리를 보면서 행복하게 웃는 것, 나뭇잎 사이로 비친 하늘을 사진찍기 등의 리츄얼은 삶을 살아가는데 윤택유 역할을 할 뿐 아니라 내면을 충만하게 한다. 수도자는 루틴을 리츄얼로 바꾸는 사람이고, 자연을 친구삼아 그들과 교감하며 자연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다.

이 영화 주인공은 현재를 사는 사람이다. 영화는 이 사람이 왜 청소부가 되었는지,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주지 않는다. 주인공은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집중한다. 영화 중에 “지금은 지금, 다음은 다음...”이라는 노래 가사가 나온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에 압박당하지 않으며, 현재를 충실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단순하게 표현되었다. 영화를 보고 나서 이렇게까지 긴 여운이 남는 것은 드문 일이었다. 도시 수도 생활에 관심 있는 여러분의 관심을 추천한다.

서빙고 02.793.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분당 2부 오전 11:00 분당
3부 오후 1:00 분당 4부 오후 3:0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비전홀
3부 오전 11:30 분당, 비전홀, 두란노홀
4부 오후 1:50 분당, 비전홀
5부 오후 4:00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분당 2부 오전 6:30 비전홀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전 7:2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전 6:30 분당
목요열방예배
매주 목요일 오후 7:20 두란노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시간: 매주일 오전 11:20
장소: 신동아 쇼펍센터 3층(302호)
담당: 오은규 목사
문의: 010-5766-4462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2:00 두란노홀
문의: 이지은 대표(010-8741-3077)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홀
Love My Life 예배(사별자모임)
비대면모임: 매주 화 오후 7:30-8:30(Zoom)
대면모임: 매주 토 오전 11:00~오후 2:00
문의: 김희연 총무(010-3204-3815)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홀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청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시온홀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30 서빙고 한동홀
문의: 김한식 팀장(010-3597-7152)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홀
문의: 김상호(010-93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40 경찬홀
문의: 02-3215-3707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 온누리M미션
네팔어예배 14:00 선교관 202호 / 러시아어
예배 12:00 신동아 2층 믿음홀 / 몽골어예
배 14:00 선교관 101호 / 아랍어예배 14:00
본관 B102호(매달 첫 주만 선교관 202호) /
페르시아어예배 13:00 온누리청소년문화
센터 4층 강의실1
인천 온누리M미션
모자이크예배 14:00 3층 소망홀
안산M센터
네팔어예배 10:00 303호 / 러시아어예배
10:00 지하 Onnuri Hall / 몽골어예배
10:30 201호 / 미얀마어예배 10:30 202호 /
베트남어예배 10:30 301호 / 아랍어예배
12:00 2층 Library / ANEWS예배 1부 9:00,
2부 11:00 4층 Manna Hall / 우즈베키스탄
어예배 14:00 301호 / 인도네시아어예배
16:00 3층 Startree / 중국(청장년)예배
11:00 4층 Manna Hall / 캄보디아어예배
10:00 302호 / 태국어예배 14:00 4층
Manna Hall / 필리핀어예배 14:00 지하
Onnuri Hall / 대학청년부 12:30 302호 /
다문화 파워웨이브 11:00 305호 / 다문화
꿈팡 11:00 1층 Star Tree Academy / 다문
화 예꿈 11:00 지하 Dream Kids Room
김포M센터
러시아어예배 14:00 703호 / 몽골어예배
17:00 706호 / 미얀마어예배 11:00 706호 /
캄보디아어예배 11:00 703호 / 다문화 파워
웨이브 토요주일 14:00 703호 / 다문화 꿈
팡 11:00 705호
군산M센터
ANEWS예배 11:00 101호 / 다문화 차세대
예배 11:00 102호
남양주M센터
네팔어예배 토요주일 20:00 304호 / ANEWS
예배 11:00 301호 / 캄보디아어예배 11:00
304호 / 힌디어예배 토요주일 20:00 301호 /
다문화 차세대 예배 13:00 306호
서산M센터
ANEWS예배 11:30 비전홀
평택M센터
몽골어예배 11:00 2층 분당 / ANEWS예배
13:30 4층 열방홀 / 파워웨이브 11:00 4층 열
방홀 / 다문화 꿈팡 11:00 2층 차세대예배실
화성M센터
네팔어예배 11:00 202호 / 캄보디아어예배
10:00 301호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오후 4시 / 신관 누리를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차세대사역본부 수요어머니기도회
일시: 매주 수요일 오전 9:30-10:20
장소: 서빙고 콘서트홀, 양재 온유홀
문의: 서빙고(02-3215-3523)
양재(02-570-7553)
Acts29비전빌리지 서를 운행
시안체예배시간: 11:30~12:30
서빙고 출발 9:30, 양재 출발 10:10
비전빌리지(양지) 출발 15:00
마리아행진, 무릎선교기도 연합기도 모임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9:45~12:3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여성사역(02-3215-3227)
한터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있으신 분들
을 위한 공동체
일시: 매 주일 오전 10:00
장소: 서울 강서구 양천로 504 명문빌딩 7층
문의: 02-3463-9686
서빙고 대청어머니기도모임
대학청년들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00 본관 B102호
문의: 010-3003-5910
남대문희망공동체 예배
쪽방촌 주민, 노숙인과 함께 드리는 예배
매 주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용산구 후암로57길 9-3
문의: 010-2495-2319
군선교 기도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선교관 101호
문의: 군선교팀(02-3215-3214)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님 환영
BEE 선교 기도모임
대상: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선교 사역
에 관심 있는 모든 성도
일시: 매주 토요일 6:30-8:00
장소: 서빙고온누리교회 한동홀
문의: 010-5250-1233

CMN 라파팀 외국인 진료 의료진 모집
일시: 매월 넷째 주일 오후 4시~6시
분야: 내과, 가정의학과, 치과, 간호사
장소: 서빙고 선교관 B1 라파진료실
문의: 박귀홍 팀장(010-9990-2875)

예수사랑부 드러머 교사 모집
시간: 주일 11:30~12:30 한동홀
문의: 김영선(010-3474-7635)

온누리세라핌합창단 단원 모집
대상: 초1~중1(타캠퍼스, 타교인 지원 가
능)
연습: 매주 토요일 오후 1~4시 / 첫째·
셋째 주일 오후 1시 30분~3시
장소: 서빙고 성가대실(지하 1층)
문의: 김미현(010-8285-6435)

양재 02.573.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사랑홀
일요주일예배(사랑홀, 드림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저녁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 오후 10: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9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30, 하용조 기쁨홀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쁨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
로 드리는 예배)**
Jesus Vine 중등1~고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후 1시 5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1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1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교육관 기쁨홀(A동 3층)
고등부: 교육관 온유홀(A동 2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영아2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2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도곡교육관 주일 10: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영어 차세대예배
Youth Service 11:00 도곡1교육관 온유홀
Kidzone 10:30 도곡2교육관 기쁨홀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4:00 예배(청년부)
갈렙청년부 도곡1관 기쁨홀
사랑부 예배
1부예배(사랑부) 오전 9:00(발달장애인
6세~18세), 비전홀B
문의: 이은일 목사(010-3646-7994)
2부예배(예수사랑부) 오전 11:20(발달
장애인 대학청년), 비전홀B
문의: 김병철 목사(010-9289-3927)

프랑스어 예배
설교: Samuel Hatangimana
Maxime Szustak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9560-0059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김종균 목사
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053-2179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 주일 14:00 JDS홀
마리아행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양재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러빙핸드
문의: 김은지 권사(010-3285-1726)
BEE 선교 기도모임
대상: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선교 사역
에 관심 있는 모든 성도
일시: 매주 토요일 6:50-9:00
장소: 양재온누리교회 비전홀B
문의: 010-6422-8376

CMN 토보팀 의료진 모집
일시: 매월 두 번째 주일 오후
장소: 김포M센터(이주민, 난민 의료지원)
분야: 치과의사, 치위생사
문의: 윤상엽 팀장(010-9439-1180)

CMN 드림팀 아웃리치 의료진 모집
일시: 8월 9일(금)~13일(화)
장소: 네팔
문의: 이도희 팀장(010-5663-1921)

브릿지33+ 예배팀 모집
분야: 메인 간반
사례비: 협의 가능
문의: 김혜련 예배팀장(010-9699-
5731)

**케냐 마사이부족 엔게레수나
어린이 도서관 후원**
모집: 1.5~12세 읽을 수 있는 영어 책
(학습지는 받지 않습니다)
2. 아동 운동화(사이즈 190~230)
3. 아이들의 공책, 필기도구(새 상품 &
미사용 물품)
4. 집에 안 쓰고 가지고 있는 수건(욕실
타월, 사용감 없는 타월)
보낼 곳: 양재 목회지원실
문의: 임정윤 간사(02-570-7469)

부천 032.322.9686

토요주일예배 9:0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2:00 / 4부(대학청년) 4:00/
5부 7: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분당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1부 9:00, 영아2부 11:30 / 유치1부 9:00, 유치2부
11:30 / 유년1부 9:00, 유년2부 11:30 / 초등1부 9:00 / 초
등2부 11:30 / 소년1부 9:00 / 소년2부 11:30 / PW1부
9:00 / 중등부 11:30 / 고등부 11:3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한사랑예배(탈북민)
주일 오후 2:00 꿈아이홀
사랑부예배(장애인)
주일 오전 11:30 꿈아이홀
중국어예배 오후 2:00 두란노홀

수원 031.895.6500

토요주일예배
토요주일예배, 예꿈놀이학교, 사이닝키즈, 어와나 10:00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찬양예배 14:00
대학청년(주일)
오후 2시 비전홀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오후 7:30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드림홀 / 유아부 9:00, 11:30 조이
홀 / 유치부 9:00, 11:30 소망홀 / 유년부 9:00, 11:30
믿음홀 / 초등부 9:00, 11:30 대광빌딩 4층 / 소년부
9:00, 11:30 사랑홀 / 중등부 9:00, 11:30 비전홀 / 고
등부 9:00 경찬홀 / 영어예배 차세대 11:30 경찬홀

대전 042.825.3642

토요주일예배
10:00 분당, 한누리(탈북민) 11:00 303호
일요주일예배
1부 7:10 / 2부 9:00 / 3부 11:30 / 4부 젊은이예배
14:30 / 5부 대학부예배 14:30 누리홀 / 세종교육관
분당 1부 9:00 / 2부 11:30 / 3부 14:30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5:20 분당 / 6:00 세종교육관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00 분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19:30 분당
주일 차세대예배
예꿈1부 9:00 302호 / 세종교육관예꿈 11:30 407호 / 영
아부 11:30 301호 / 유치부 11:30 302호 / 꿈팡1부 9:00
304호 / 세종교육관 유년부 11:30 402호 / 세종교육관 소
년부 11:30 411호 / 유년부 11:30 304호 / 초등부 11:30
303호 / 소년부 11:30 비전홀 / 중등부 11:30 누리홀 / 고
등부 9:00 누리홀 / 세종교육관파워웨이브 9:00 402호

남양주 031.565.9686

토요주일예배 10:30 3층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대학청
년) 14:00 / 4부(저녁) 19:00 / 행복한 하나예배(탈
북민) 11:00 온유홀 / 다문화예배 15:30 꿈팡홀
외국어예배 힌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
터 301호 / 네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4호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3층 분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3층 분당
수요부흥예배 오후 7:30 3층 분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2층 예꿈홀 / 유치부
9:00 2층 예꿈홀 / 유년부 9:00 2층 꿈팡홀 / 초등부
11:30 2층 꿈팡홀 / Awana 토요일 10:00 2층 꿈팡
홀 / 중등부 오전 11:30 기쁨홀 / 고등부 9:00 기쁨홀

양지 031.331.8171

토요주일예배 9:0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YJ대학
청년) 14:30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드림씨드홀 / 유아
부·유치부 11:30 위더슨홀 / 유년부 11:30 아벤
젤라홀 / 초등부 11:30 킬보른홀 / 중등부·고등
부 11:30 박도세홀
주일기도모임 예배중보기도모임 주일 10:30 캠퍼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예배 10:30 박도세홀/ 금요
성령집회 21:00 시안홀(7~8월)
새벽예배 월~금 6:00 시안홀

영종 032.752.7937

토요주일예배 10:00 3층 백향목홀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14:00 백향목홀(3층)
새벽예배 월~금 5:30 백향목홀(3층)
차세대예배 파워웨이브(중고등부) 14:00 / 꿈팡(유초등부) 11:30
언더우드홀(2층), 예꿈(유치부) 11:30 아벤젤라홀(2층)
수요여성예배 10:30 백향목홀(3층)

평택 031.651.9680

토요주일예배
10:2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분당 / 2부 11:25 분당 / 3부 14:05 분당
대학청년(주일) 16:00 분당
영어예배(주일) 14:10 301호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기도모임 매주 수 13:30 301호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30 분당
수요저녁경배와찬양예배 매주 수 오후 8:00 분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4층 영아부 예배실 / 유치부 11:30 3층 예
꿈 예배실 / 초등부 9:00 3층 예꿈 예배실 / 유년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파워웨이브 11:30 3층 파워웨
이브 예배실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2층 분당

인천 032.437.9686

토요주일예배
10:0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4부 13:50
대학청년 16:00 분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사이닝홀 / 유아부 9:00, 11:30 누리홀 /
유치부 9:00, 11:30 꿈아이홀 / 유년부 9:00, 11:30 드림홀 /
초등부 9:00, 11:30 기쁨홀 / 소년부 9:00, 11:30 믿음홀 / 파
워웨이브 9:00, 11:30 소망홀
장애인예배 및 국제예배
사랑부 9:00, 11:30 사랑홀 / 다문화 모자이크 예배 14:00 소망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2층 분당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2층 분당

강동 02.475.9686

토요주일예배
10:3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14:00(프라미스(분당),
프라미스U(사랑홀))
차세대예배
예수님의 꿈아이 11:30 두란노홀 / 유년부 11:30
사랑홀 / 초등부 11:30 드림홀 / 중고등부 9:00
사랑홀
장애인예배
사랑부 11:30 경찬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여성예배 10:30 분당
금요기도집회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20:00 분당
새벽예배 오전 6:20 분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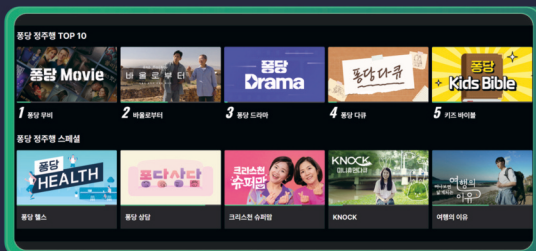
포당 2.0

24시간 일상 밀착 크리스천 플랫폼
영화, 드라마, 다큐, 설교, 강의, 찬양, 키즈 프로그램에 외국어 콘텐츠까지
사용자 편의성이 향상된 '포당 2.0'에서 만나보세요.



LIVE 포당 라이브 채널

"집에 TV가 없는데, 기독교 방송이 보고 싶어요."



포당 정주행 채널

"찬양, 복음 콘텐츠를 광고 없이 계속 듣고 싶어요."



포당 댓글 · 라이브 채팅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눌 커뮤니티가 필요해요."



포당 영화

"자극적인 영화, 드라마에 너무 지쳤어요."

